

The General Research of Yemen

- 예멘의 선교 역사와 현황, 그리고 새로운 가
능성



아시아 지역연구소

Handong Center for Asian Area Studies

9th MFR Training Team

목 차

제1장 MFR 소개	3
제2장 일정 보고서	6
제3장 조사 보고서	17
제4장 선교전략 보고서	60

제 1 장

MFR 소개

1. MFR이란?

MFR(Middle-East Field Research Team)은 한동 아시아 지역 연구소(Center for Asian Area Studies)의 산하 기관으로서 CFR(China), SFR(South-east), IFR(India), PFR(Pacific), KFR(Kazakhstan), NKFR(North Korea)와 함께 지역 연구가 필요한 선교지를 조사하고 한국 교회에 그들의 필요를 알리는 현장 지역 조사 팀이다. 2001년 5월말 중동 지역을 위한 1기 리서치팀이 구성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1기 MFR이 중동 5개 지역 리서치를 다녀온 후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2. MFR의 목적

MFR은 중동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해 중동 지역의 실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전달함으로써 현장의 영적, 일반적인 상황과 필요를 알린다. 아울러 단기 미션팀 활동을 통하여 현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며, 중동 지역의 중보자들과 네트워크하며 궁극적으로는 선교 헌신자를 세우고 동원함으로써 중동 지역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MFR의 목표

Worshiper(예배자)

Field Researcher(현장 전문가)

Reporter(보고자)

Intercessor(중보자)

4. MFR의 연혁

2001년 5월, CFR 5기 훈련강의 가운데 중동지역으로 콜링

2001년 9월부터 매주 화요일 8시~11시까지 정규모임 시작

2001년 12월 20일~2002년 1월 25일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리서치

2002년 4월 4일 2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2년 7월 8일~8월 8일 터키, 이란 리서치

2002년 9월 18일 3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1월 7일~2월 5일 아랍 에미리트 리서치
2003년 4월 4일 4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7월 7일~8월 10일 요르단, 이라크 리서치
2003년 9월 25일 5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3년 12월 27~ 2004년 1월 18일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리서치
2004년 3월 25일 6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4년 7월 27일~8월 15일 이란 리서치
2004년 9월 23일 7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5년 1월 11일 ~ 2월 2일 훈련팀 7기 이집트 리서치
2005년 3월 25일 8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5년 6월 29일~7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리서치
2005년 9월 2일 9기 훈련팀 10주 훈련 시작
2005년 12월 28일~1월 20일 9기 훈련팀 예멘 리서치

5. MFR 9기 훈련팀 구성

제 2 장

일정보고서

1. 10주 훈련 및 합숙 일정

1) 10주 훈련

일시	강의주제	강사
1주 9/23 (1차 캠프)	크리스천의 역사인식 FR Spirit	오성훈 목사 마민호 소장
2주 9/29	선교사적 관점에서 본 지역연구와 리서치	마민호 소장
3주 10/4	리서치와 전도(전도의 실제)	김학철 교수
4주 10/13	리서치 기법 I	최성욱 간사

5주 10/20	리서치와 영적 도해	김바울 선교사
6주 10/27	권리포기와 재정관리	김혁수 목사
7주 11/4 (2차 캠프)	한국교회와 선교	이용남 목사
8주 11/10	리서치와 중보기도, 영적 전쟁	이광임 사모
9주 11/17	리서치기법II (지역개발 조사표, 보고서 스피릿)	마민호 소장
10주 11/24	공동체	김철구 선교사

(1) 리서치실습 & 지역연구

① 1차 리서치실습

- 기간: 10월 29일
- 주제: 일반적 지역조사
- 팀원: ‘우목리’ 팀(조란희, 김은총, 임재홍, 곽민혜)
‘곡강리’ 팀(송재경, 신승희, 이겨레, 김석윤, 장현주)

② 2차 리서치실습

- 기간: 11월 19일
- 주제: 전도 실습
- 팀원: ‘우목리’ 팀(조란희, 김은총, 임재홍, 장아름)
‘곡강리’ 팀(송재경, 신승희, 이겨레, 김석윤)

(2) 기타 훈련

① 기도회

- 월요일: 열방예배
- 화요일: 양육
- 수요일: 공동체 기도회
- 목요일: 훈련팀 목요 강의
- 금요일: HGFR 전체 예배

② 지역연구 모임

: 각자가 맡은 부분을 사전 조사 한 후 1주일에 한번씩 모여 그 내용을 서로 공유 하며 중보기도를 통하여 리서치를 준비하였다.

2) 10일 합숙 훈련

- (1) 기간: 2005년 12월 19일~12월 27일
- (2) 장소: 한동대학교

(3) 일정: 부록(P. xx참고)

2. 리서치 일정

12월 28일(수)			
05시 40분	두바이 도착(U.A.E 시간)	19시 20분	저녁 식사
06시 55분	사나로 출발	20시 50분	샤라자마르 시장 도착(발토, 샌들 구입)
09시 10분	사나 도착(예멘 시간)	22시 50분	게스트하우스에 도착
11시 00분	게스트 하우스 도착	23시 15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11시 25분	박지현 선교사님 댁 도착(점심 식사 및 교제)	24시 20분	전략 회의 마침
13시 30분	게스트 하우스 도착		
16시 15분	Paul, 최영미 선교사님 미팅(MFR소개 및 일정 계획 논의)		

12월 29일(목)			
08시 00분	기상	14시 30분	휴식시간
08시 15분	QT	17시 00분	와디로 출발
09시 35분	아침식사	18시 40분	식당도착
10시 10분	old city-Bab Al Yemen 출발	19시 30분	저녁 식사 마침
10시 50분	Bab Al Yemen(Bab Al Yemen Gallery, 알 자미 알 카비르 모스크, 고대 교회 터, 시장)	19시 45분	박준범 선교사님 강의
		22시 15분	강의 마침
13시 25분	점심 식사	22시 50분	기도회 및 전략회의
13시 55분	점심 식사 마침		

12월 30일(금)			
07시 30분	기상	12시 50분	Paul 선교사님 댁 (점심 식사, 교제, 특송 연습)
07시 50분	QT	16시 05분	한인 예배
08시 50분	아침식사	19시 20분	저녁 식사
09시 30분	Kentucky International Fellow교회에서 예배	20시 55분	게스트 하우스 도착
11시 45분	예배 마침	10시 00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12월 31일(토)

07시 25분	QT 모임	13시 25분	점심 식사
08시 35분	아침 식사	14시 00분	선교사님들과의 교제 (이정석, 배정원, 박지현 선교사님 가정)
09시 50분	사나 대학으로 출발		
09시 55분	사나 대학 도착		
12시 55분	사나 대학에서 나옴	18시 07분	저녁 식사
12시 55분	WEC 게스트 하우스로 가는 버스 탑	21시 15분	예배 및 전략 회의
13시 25분	WEC 게스트 하우스 도착	23시 15분	예배 및 전략 회의 마침

1월 1일(일)			
07시 10분	세운 가는 버스 터미널 도착	16시 53분	유진 선교사님 댁 도착
07시 25분	세운으로 출발	21시 00분	예배 시작
16시 40분	세운 도착	22시 05분	예배 마침

1월 2일(월)			
06시 30분	기상	15시 00분	개인시간
06시 45분	QT	16시 55분	개인시간 마침
07시 40분	아침식사	16시 55분	하디까 말라히 놀이공원
08시 40분	유진 선생님, 이브라힘 형제가 하는 성경번역사역 참여	20시 05분	저녁 식사
11시 25분	자매 조-현지인 가정 방문	20시 30분	개인 시간
11시 30분	형제 조-리서치 파일노트 정리	21시 30분	기도회
14시 30분	점심 식사	23시 30분	전략 회의
			마침

1월 3일(화)			
07시 15분	QT	14시 15분	자유시간
09시 05분	아침식사	14시 50분	말씀 통독
09시 30분	(형제 조- 기술직업교육훈련학교 방문)	16시 30분	현지인 집 방문
	(자매 조- 개인 시간)	18시 40분	집에 도착
		20시 45분	저녁식사
13시 30분	점심식사		

1월 4일(수)

07시 40분	QT	16시 25분	세윤(산에 올라가 땅 밟기 기도)
08시 50분	아침 식사		
10시 15분	시장, 술탄 궁전	18시 55분	저녁 식사
11시 05분	취밤	22시 00분	예배
14시 25분	점심식사	23시 05분	예배 마침

1월 5일(목)			
04시 50분	기상	15시 00분	점심 식사 마침
05시 40분	사나로 가는 버스 출발	16시 00분	Paul 선교사님 댁으로 출발
	사나 도착		저녁 식사
13시 35분	박지현 선교사님 댁 도착	20시 10분	저녁 식사 마침
14시 00분	점심 식사	20시 50분	기도회 및 전략
		22시 00분	

1월 6일(금)			
09시 20분	QT	16시 10분	한인 예배
10시 25분	QT마침	18시 10분	한인 예배 마침
13시 05분	말씀 통독	19시 15분	저녁 식사
14시 00분	점심 식사	20시 30분	저녁 식사 마침
16시 00분	박지현 선교사님 댁(한인 예배)	21시 15분	Paul 선교사님 댁 도착
		23시 00분	기도회 및 전략회의

A team(배성진<조장> 김석윤, 조란희, 신승희)

1월 7일(토)			
07시 30분	QT	17시 20분	HADDA STREET으로 출발
09시 10분	아침 식사	18시 20분	HADDA STREET도착
10시 00분	데니스 선교사님 사무실로 출발	19시 00분	신축중인 모스크(예멘을 위한 기도시간을 가짐)도착
12시 45분	Paul 선교사님 댁 도착		
13시 10분	점심 식사	19시 30분	저녁 식사
15시 10분	말씀통독	20시 25분	Paul 선교사님 댁 도착
16시 30분	리서치 출발		

B team(김은총<조장> 이겨레, 임재홍)

1월 7일(토)			
07시 30분	QT	18시 15분	1번 더밥 타고 사나 대학 교대 도착
09시 10분	아침 식사		
10시 00분	데니스 선교사님 사무실로 출발	18시 35분	Science & Technology 대학 부속 병원 도착
12시 45분	Paul 선교사님 댁 도착		
13시 10분	점심 식사	18시 40분	병원 과장- 책임 닥터 만남-샤이와 간식 거리 대접받음
15시 10분	말씀통독		
16시 30분	리서치 출발	19시 25분	병원 나와서 사나 대학으로 다시 들어감
16시 40분	6번 더밥탐승		
16시 56분	더밥종점 - al-tahaier 광장 도착	19시 50분	사나 대학 내의 아파트 방문
17시 40분	모스크, 네셔널 아트 박물관, 네셔널 전쟁 박물관	20시 20분	1번 더밥 탑승
		20시 50분	Paul 선교사님 댁 도착
		21시 30분	예배

1월 8일(일)			
08시 50분	코카반으로 출발	19시 10분	저녁식사
10시 23분	코카반	20시 05분	라더 선교사님
13시 08분	박지현 선교사님 댁 도착	23시 45분	예배
		24시 15분	예배 마침

1월 9일(월)			
06시 20분	QT	18시 30분	저녁 식사
07시 20분	사다로 출발	19시 00분	저녁 식사 마침
13시 00분	점심 식사	21시 00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13시 25분	점심 식사 마침	23시 00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마침
15시 00분	사다 도착		

1월 10일(화)			
07시 45분	QT	15시 40분	배정원 선교사님 댁 도착

08시 45분	QT마침		저녁 식사
09시 00분	아침 식사	18시 20분	배정원 선교사님 댁 나옴
09시 35분	아침 식사 마침	20시 25분	저녁 예배
12시 30분	병원	21시 00분	전략 회의
13시 10분	점심 식사(장택규 선교사님)	22시 15분	전략 회의 마침

1월 11일(수)			
07시 45분	QT	13시 15분	점심 식사 마침
09시 00분	QT마침	16시 35분	(자매 조-샤리파 가정)
10시 00분	사다 성벽 돌기	17시 10분	(형제 조-하싼 가정)
12시 00분	말씀 통독	18시 30분	저녁식사 및 교제시간
12시 35분	점심 식사	21시 10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1월 12일(목)			
08시 15분	사나로 출발	17시 55분	박지현 선교사님 댁(이삿집 나옴)
16시 35분	사나 도착		
16시 35분	저녁 식사(Paul 선교사님 댁)	21시 55분	Paul 선교사님 댁으로 이동
17시 30분	박지현 선교사님 댁으로 이동		

1월 13일(금)			
08시 10분	아침 식사	15시 15분	Global Care Charitable Clinic으로 출발
08시 40분	아침 식사 마침		
09시 25분	Kentucky 예배 참석	15시 30분	Global Care Charitable Clinic 도착
11시 10분	예배 마침		
12시 15분	Paul 선교사님 댁 도착	16시 10분	개업 예배
12시 45분	점심 식사	18시 40분	저녁 식사
13시 30분	점심 식사 마침	21시 10분	Paul 선교사님 댁 도착
14시 30분	말씀 통독 및 QT	21시 50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1월 14일(토)			
08시 00분	QT	16시 00분	예멘국가대표 탁구팀과 축구
09시 00분	아침 식사	18시 25분	축구 시합 마침
09시 40분	아침 식사 마침	19시 30분	저녁 식사
11시 50분	점심 식사	20시 00분	저녁 식사 마침
13시 45분	점심 식사 마침	20시 25분	김보은, 김보영 선교사님과
14시 00분	임바울 선교사님 댁 도착		교제
15시 30분	임바울 선교사님과 교제 마침	23시 00분	교제 마침

1월 15일(일)			
09시 00분	아덴으로 출발	20시 00분	저녁 식사
16시 50분	아덴 도착	20시 45분	아덴 항구
17시 25분	영국 성공회 교회 도착	21시 35분	영국 성공회 교회 도착
18시 00분	Peter & Nancy 목사님 부부와 예배	22시 00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1월 16일(월)			
07시 40분	QT시작	14시 00분	점심 식사
08시 40분	QT마침	15시 25분	AMIDEAST 학원으로 출발
09시 30분	아침 식사	17시 5분	AMIDEAST 학원 도착
10시 00분	아침 식사 마침	17시 55분	중국 식당으로 출발
11시 00분	RAS MORBAT CLINIC도착	18시 10분	중국 식당 도착
12시 00분	RAS MORBAT CLINIC에서 나옴	19시 20분	저녁 식사
12시 25분	말씀 통독	19시 50분	David 가정에서 예배
12시 40분	식당으로 출발	22시 10분	영국 성공회 교회 도착
13시 45분	식당 도착	22시 30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1월 17일(화)			
07시 10분	QT	13시 45분	점심 식사 마침
08시 30분	아침 식사	15시 50분	조개 잡기
09시 10분	아침 식사 마침	18시 00분	저녁 식사
10시 00분	Beach에서 배타기	19시 30분	저녁 식사 마침
11시 35분	동사장님 댁으로 이동	21시 00분	영국 성공회 교회 도착
12시 10분	동사장님 댁 도착	22시 20분	기도회 및 전략 회의
13시 15분	점심 식사		

1월 18일(수)			
07시 05분	QT	20시 20분	박지현 선교사님 댁으로 이동
08시 10분	사나로 출발		
18시 05분	사나 도착	21시 00분	중국 기독교인 가정과 교제
18시 20분	임바울 선교사님 댁으로 출발		예배 시작
20시 20분	임바울 선교사님 댁 도착	00시 50분	예배 마침
		1시 00분	

1월 19일(목)			
08시 15분	QT	15시 55분	중보기도자 선물 구입
09시 15분	아침 식사	20시 15분	저녁 식사
10시 15분	탁구협회 사무실로 이동	21시 15분	저녁 식사 마침
10시 20분	탁구 협회장과의 인터뷰	23시 00분	박지현 선교사님 댁으로 이동
13시 25분	Paul 선교사님 댁으로 출발		
13시 55분	Paul 선교사님 댁 도착	2시 00분	선교사님들과 기도회

1월 20일(금)			
08시 00분	공항으로 출발	13시 45분	두바이 도착(두바이 시간)
08시 30분	공항 도착	15시 00분	호텔로 이동
10시 30분	이륙	18시 30분	팀 모임
11시 00분	점심 식사	19시 20분	저녁 식사
11시 30분	점심 식사 마침	22시 05분	저녁 식사 마침

1월 21일(토)			
01시 10분	공항으로 출발	19시 30분	포항으로 출발
03시 00분	비행기 탑승	24시 30분	포항 도착
16시 40분	한국 도착(한국 시간)		

1월 22일(일)			
01시 10분	한동대 도착	19시 10분	예배 식사
18시 00분	저녁 식사	20시 10분	예배 마침

3. 보고서 합숙

	1/22 (일)	1/23 (월)	1/24 (화)	1/25 (수)	1/26 (목)
8:00	주일 예배 / 개인시간	QT			
8:50		아침 식사			
10:00		간증문	주제보고서	주제보고서	기도요청보고서
12:30		점심 식사			
14:00		간증문	주제보고서	주제보고서	부록, 마무리
18:00	저녁 식사				
19:00	예배	부별보고서	주제 보고서 토론(해석, 분석, 콘텐츠완성)	선교전략 보고서	부록, 마무리
20:00			HGFR 전체 감사 예배		
21:00					
22:00		예배		예배	

제 3 장

조사보고서

I . 조사목적

예멘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예멘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들을 수집 및 가공한다. 예멘은 국제 사회에서만 아니라 선교단체, 교회들 안에서도 다른 중동지역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지역이다. 최근 쌀레 예멘 대통령의 방한,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진출 등 대한민국과 예멘과의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려 한다. 이러한 시점에 예멘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와 선교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한국교회와 중보기도자들에게 보고함에 조사 목적을 둔다. 또한 일차적으로 현지를 탐방하고, 조사한 것을 토대로 이후 MFR 기수들이 더 자세하고 필요한 주제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II . 조사방법

예멘은 다른 중동지역에 비해 사전 조사가 가능한 자료가 적은 편이다. 특별한 주제가 없이 일반적인 예멘조사를 목표로 하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방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인터뷰
 - 1) 현지 선교사님들과의 인터뷰
 - 2) 사나 대학생들과의 인터뷰
 - 3) 문화 관광부 차관과의 인터뷰
2. 관찰 조사
 - 1) 거리 관찰 조사
 - 2) 현지인 가정 방문 관찰 조사
 - 3) 관공서, 대학 방문 관찰 조사
 - 4) 지방 도시 (세운, 쉬밤, 아덴, 사다, 코카반)
3. 문서자료 조사
 - 1) 기존 논문 조사
 - 2) 웹 조사¹

¹ 한국 예멘 교류 센터(<http://hopia.net/kyc/>)의 논문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III. 조사내용

1. 예멘 개관

1) 국기 및 지도



*색의 의미- 붉은색: 자유와 독립을 위한 혁명

하얀색: 평화와 희망(혹은 영토)

검은색: 이맘 통치기(혹은 식민지시대의 압정)



2) 일반 개관²

국 명	예멘공화국(Republic of Yemen)
<지 리>	
면 적	527,970.00 km ² (한반도의 약 2.4배)
위도/경도	북위 15° / 동경 48°
최고도 지역	Jabal an Nabi Shu'ayb - 3,760 m
경작 가능 면적	2.78%
기후	고원산악지대(온화 건조; 0-25도), 해안저지대(고온 다습; 15-40도)
<사 랑 - 2005년 7월 통계자료>	
인 구	20,727,063명
인구 분포	0-14세: 46.5% (남성 4,905,831/여성 4,727,177) 15-64세: 50.8% (남성 5,364,711/여성 5,172,811) 65세 이상: 2.7% (남성 274,166/여성 282,367)
인구성장률	3.45%
출생률	1000명당 43.07명 출생
사망률	1000명당 8.53명 사망
유아 사망률	1000명당 61.5명 사망 (남: 66.26 / 여: 56.49)
여성 1인당 출산율	6.67명
평균 수명	61.75세(남: 59.89 / 여: 63.75)
15세 이상 문맹율 (2003년)	49.8%(남자 29.5%, 여자 70.0%)
언 어	아랍어(크게 7개의 지역방언으로 나뉜다. 8%사람들이 소말리아어를 사용하며, 11%의 사람들이 힌디어를 사용한다. 마흐라(Mahra)족들은 마흐리어를 사용한다)
인 종	아랍족(아랍인 90%, 인도, 소말리아, 이디오피아인 10%, 소수의 Akhdam-아프리카인과의 혼혈이라 불리는 천민계층)
종 교	이슬람(중·남부 순니 63%, 북부 자이드 시아 37%, 이스말리파 1%)

² CIA 홈페이지 참조

<정 치>	
수 도	사나(Sana'a)
행정구역	19지역(Abyan, Aden, Ad Dali, Al Bayda, Al Hudaydah, Al Jawf, Al Mahrah, Al Mahwit, Amran, Dhamar, Hadramawt, Hajjah, Ibb, Lahij, Ma'rib, Sa'dah, San'a', Shabwah, Ta'izz)
헌법	1990.5.22 통합헌법 승인(02.2 대통령 임기연장 등 헌법 재 개정)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 원수	쌀레(Ali abdullah Saleh)대통령(90.5 집권, 99.9 재선, 임기 7년)
수상	바잠말(Ba-Jammal)총리(2001.4 취임)
주요정당	국민회의당(GPC), 예멘개혁당(Islah), 예멘사회당(YSP), 바트당, 나 세르당, 알 하크당 등
대의기구	단원제(301명, 임기6년)
군사력(2003년)	육군 60,000명, 해군 1,700명, 공군 5,000명
<경 제 - 2005년 통계>	
통 화(2006년 1월)	1\$ = 195YR
최근 5년 평균환율	192.67 (2005), 184.78 (2004), 183.45 (2003), 175.63 (2002), 168.67 (2001)
무역량	- 수출: 6,387,000,000\$ - 수입: 4,190,000,000\$
주요 수출·입국 (2004년)	- 수출: 태국 33.8%, 중국 30.3%, 싱가포르 7.8% - 수입: UAE 12.2%, 사우디 아라비아 9.7%, 중국 8.8%, 프랑스 7.3%, 인도 4.4%, 미국 4.4%, 쿠웨이트 4.2%
GDP	172억\$(purchasing power parity)/ 141억\$(official exchange rate)/ 1인당 GDP: 800\$
GDP 부문별 비율	농업: 13.3% / 산업: 47.9% / 서비스업: 38.8%
1일 석유 생산량	387,500 bbl
공채(公債)	GDP의 35.9%
실업률(2003년)	35%
국방비(2003년)	885,500,000\$ (당시 GDP의 7.8%)

<기타 사항>	
주 요 대 학	사나 대학교,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 아덴 대학교
국가 공휴일	<p><이슬람 공휴일 - 이슬람력></p> <p>-Eid Al-Fitr : 라마단(Ramadan) 29일 ~ 샤우왈(Shawwal) 3일(4일간)</p> <p>-Eid Al-Adha : 돌 하자(Dhu Al-Hajja) 9일부터 12일(4일간)</p> <p>-이슬람 신년: 무하람 (Hijri New Year Moharram 1) 1일</p> <p>-무함마드 탄신일: 라비아 알 아우왈(Rabia Al-Awwal) 12일</p> <p>-알 이쓰라(Al-Israa) : 라잡(Rajab) 27일</p> <p><국가 공휴일></p> <p>-신년: 1월 1일</p> <p>-노동절: 5월 1일</p> <p>-공화국 선포일: 5월 22일</p> <p>-9월 혁명기념일: 9월 26일(북 예멘 혁명 기념일)</p> <p>-10월 혁명기념일: 10월 14일(남 예멘 혁명 기념일)</p> <p>-해방기념일: 11월 30일</p>
정규 공휴일	매주 금요일
시 차	GMT + 3(한국 -6시간)

2. 역 사

1) 연대표

(1) 고대 예멘

연도	내용
BC 950-115	고대 시바 왕국.
AD 6세기	남 아라비아 왕국 융성, 힘야르(Himyar) 왕조에 의해 통치.
525	이디오피아가 힘야르 왕국을 정복.
575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 정복.
628	이슬람을 받아들임(바그다드의 칼리프가 임명한 지사가 예멘 통치).
9세기	자이드파 이맘 야흐야 알 하디가 라시드 왕조 성립.
1517 - 1918	오스만 터키 지배.
1538	오스만 터키 남 예멘 지역 정복(1547 및 1570년 두 차례에 걸쳐 북 예멘을 침공하였으나 정복에는 실패).
17세기	오스만 터키의 쇠퇴와 함께 예멘은 소규모 왕국으로 분리(오스만의 쇠퇴 이후 영국은 아덴의 중요성을 인정 남 예멘 진출시도).

(2) 남·북 예멘

남 예멘		북 예멘	
1839	영국이 아덴을 점령하고 1937년 아덴을 직할 식민지로 함. 여타 지역은 대부분 부족국가의 형태로 존속.	1918	오스만 터키의 제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이맘 야흐야 예멘왕국 성립.
1958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민족해방 전선' 등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독립투쟁 조직 결성.	1962	북 예멘 쌀랄 대령 쿠데타 성공, 예멘 아랍공화국 성립.
1967	남 예멘에서 영국군 철수 이후 독립, 민족해방전선 '남 예멘 인민 공화국' 선포.	1967	쌀랄 정권 붕괴, 이리아니 정권 수립.

1970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국호 변경(11월).	1974 1977	이브라힘 알 하마디 집권. 친 사우디계 아흐마드 알 가시미 집권.
1978	예멘사회당 성립, 친소적인 이스마일 집권.	1978	쌀레 중령(현 대통령) 군부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 취임(7. 17).
1980	친소적인 알 하싸니 집권(4월).		
1986	남 예멘에서 쿠데타 발생, 알 바이드 예멘사회당 서기장 집권 (6월).	1988	쌀레 현 대통령 의회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3선).
1990	남북 예멘 통일(5.22), '예멘공화국' 성립		

(3) 통일이예멘 연대표

연도	내용
1990	남북 예멘 통일(5. 22), '예멘공화국' 성립
1991	통일헌법 공포(5. 15)
1993	통일헌법 복수정당제에 의한 총선 실시로 현 쌀레 대통령 당선(4. 27)
1994	남 북 예멘 내전 발생(5. 5 - 7. 7), 북 예멘 승리에 의한 통일국가 수립

2) 예멘의 역사

(1) 일반 역사

예멘은 3,000년 이상의 풍부하고 긴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로서 근동지역(아라비아, 북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발칸 등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도시들 중의 하나였다. 그들의 선조는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인 욕단(Jocdan)의 후손들이라 알려져 있으며, 부족왕국 형태로 비옥한 계곡들 사이에 자리잡고 살았다. B.C. 12세기부터 A.D. 6세기 동안은 시바왕국의 일부분으로 향료 등의 무역로였다. 시바의 여왕(Biliquis - 솔로몬을 방문하여 지혜를 배우고, 금, 향료, 보석을 많이 선물했던 여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가장 강성했고 아프리카와 인도를 잇는 찬란한 무역로를 형성하였었다.

그 이후 AD 6세기까지 힘야르(Himyar)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다. AD 525년 이디오피아가 힘야르 왕국을 정복하였으나, AD 575년에는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 정복되었다. 628년에 예멘은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이슬람 칼리프(이슬람의 교주)들에 의해 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중세시대에는 북 예멘은 페르시아의 지배아래 이슬람 종교지도자 이맘에 의해 통치되었었다.

1517년 예멘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 오스만의 점령은 1918년 '무드로스' 휴전 때까지 지속되었다. 1799년 페림 섬을 점령하여 1839년 아덴에 보호령을 수립한 영국은 아시르의 작은 주로부터 예멘의 북쪽 지역까지 침공한 이드리스의 침략자들을 지원하였다.

1962년 9월 27일 혁명 이후 예멘아랍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혁명 지도자 쌀랄 대령은 그 당시 새로운 정권이 아덴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강요할 의도가 없음을 천명하였고, 그 대신 영국과의 친선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 예멘은 운명을 달리하는 두 국가로 갈라지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1967년 영국군의 철수 이후 아덴에서 새롭게 형성된 '남 예멘 인민공화국'의 출현은 사실상 예멘을 체제가 다른 두 국가로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2) 남, 북 예멘

① 북 예 멘

1517년부터 1918년까지 오스만 터키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였다. 터키가 몰려난 후에 이맘 야흐야가 북 예멘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1948년에 죽고 그의 아들 이맘 아흐마드가 승계하여 1962년까지 다스렸다. 1962년 9월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이 쿠데타는 후에 대통령이 된 압둘라 앓 쌀랄 대령을 포함한 예멘 군장교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통일아랍공화국[이집트와 시리아간의 통일국가가 UAR(United Arab Republic; 통일아랍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1958년 2월 수립되었다.]의 군대에 의해 지원되었으며 공화국 군대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였다.

새롭게 선포된 '예멘아랍공화국'은 곧이어 소련과 미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며, 1963년 초 UN가입이 허락되었다. 1990년 예멘이 통일될 때까지 예멘아랍공화국은 보수적인 일련의 군사정권에 의해서 통치되었다. 육군 중령 알리 압둘라 쌀레는 1978년 7월 대통령이 되었다. 1978년 9월 암살 시도와 동년 10월 선임 육군 장교들에 의한 쿠데타 시도에도 불구하고 살

아남은 썰레 대통령은 형식적인 후퇴를 생각하였다. 이들 두 사건에 있어서 남 예멘의 개입 의혹은 두 예멘간의 관계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1979년 2월과 3월 광범위한 국경 충돌은 공개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② 남 예 멘

1839년에 영국이 아덴을 장악한 뒤에 남 예멘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은 늘어갔다. 1937년까지 British India의 일부분으로 통치되다가, 아덴은 영국의 직할식민지가 되고 남 예멘의 나머지 땅은 영국 보호령으로 남게 되었다.

1965년에 두 개의 경쟁적인 민족주의 그룹인 FLOSY(Front for the Liberation of Occupied South Yemen)와 NFL(National Liberation Front)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하면서 테러를 휘두르고, 1967년에 심한 폭력사태가 일어나게 되자 영국 군들은 남 예멘에서 물러나게 되고, NFL은 경쟁상대인 FLOSY를 제거하고, 남 예멘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1967년 11월 30일에 남 예멘은 독립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남 예멘 인민공화국'으로 고쳤다. 1969년 급진적인 NFL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력을 얻게 되면서 1970년에는 나라 이름을 '예멘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모든 정치정당들은 '예멘사회당'으로 통일되어 단일정당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③ 통일

한편 남·북 예멘의 통일에 관한 논의는 1972년 9월 양국간 국경분쟁 이후 리비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동년 10월 28일 카이로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1979년 2월 남, 북 예멘간 제2차 국경분쟁 이후 아랍연맹평의회의 중재안에 따라 동년 3월 쿠웨이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1986년 7월 남 예멘의 알 아타스 대통령과 북 예멘의 썰레 대통령은 리비아의 까다피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리폴리에서 통일 및 북 예멘에 거주하는 남 예멘 피난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담을 갖는 등 광범위한 통일 논의를 계속하였다. 1988년 5월 사나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북 예멘의 썰레 대통령과 남 예멘 사회당 중앙위원회 사무총장 알 바이드는 양국의 통일에 관한 회담을 지속적으로 열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1990년 5월 남북 예멘의 무장이 통일에 앞서 기술적으로 해제되었고, 1990년 5월 22일 '예멘공화국'이 전격적으로 선포되었다. 북 예멘의 지도자 썰레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책을 맡았고, 부통령은 남 예멘의 지도자 바이드가 맡게 되었다. 또한 북 예멘의 수도 사나는 모든 각료와 정부위원회를 불러들여 새 정부의 행정수도로 명명되었다. 지리적으로는 훨씬 크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남 예멘의 수도 아덴은 보상을 위하여 자유무역지대의 약속과 함께 경제수도로 명명되었다.

④ 예멘 공화국

통일 후 3개월 만에 예멘공화국은 걸프전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걸프전 당시에 예멘은 중립을 선포했으나,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라크와의 과거의 관계로 인해

서양 나라들과 아랍동맹국들이 예멘을 사담 후세인 측으로 생각하게 되고, 약 백만명의 예멘인 노동자들이 이들 중동나라들로부터 예멘으로 철수해야 했다.

1993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 졌고, 연립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93년 8월에 부통령인 바이드가 남 예멘으로 자진 추방됨으로써 연립정부는 충돌을 맞게 되고 정부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남쪽과 북쪽의 지도자들이 계속 협상을 하였으나 1994년 5월에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미국과 UN이 종전과 평화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1994년 7월 아덴은 북쪽에 의해 점령되고 수천의 남쪽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망명자들은 오래지 않아 다시 예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3. 정치

1)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 현재 대통령은 알리 압둘라 살레(Alī Abdullāh Saleh Al Ahmar)이며 1994년 10월1일에 선출되었다. 살레는 제1당인 국민회의의 당수를 겸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5년이었으나 2002년 헌법이 개정 되었다), 재선이 가능하다. 1990년 남·북 예멘의 통합 당시 대통령 위원회를 설치 했으나, 1994년 개정 헌법하에서 폐지하고 정 부통령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통령권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행하며 현재 부통령은 바잠말(Ba-Jammal) 총리이다. (2001년 4월 취임)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며 25개의 행정 부처가 있다. 예멘을 이끌어 가는 실질적인 세력은 대통령과 측근 그리고 부족이다.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시아파 이슬람 중 소수 세력인 자이드의 영향력이 크다. 입법부는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 의석은 301석이며 국회의원 임기는 6년이다. 사법부는 3권 분립에 따라 독립된 기관으로 예멘의 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10월에 개정된 헌법이 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예멘에서 중요한 셰이커 정치 제도를 언급 할 수 있다. 부족국가로 이루어진 예멘은 예전부터 각 부족의 족장이 모든 정치를 담당했는데, 지금도 각 부족의 권력을 인정해 주고 있어서 족장의 부족에 대한 정치적 힘과 자치도 유지되고 있다.

(1) 살레 대통령

현 예멘 대통령인 살레 대통령은 예멘 통일 당시인 1990년부터 현재 2006년까지 대통령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1978년부터 북 예멘의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취임했던 그 해에 한 차례의 암살위협과 선임 육군 장교들의 쿠데타 소란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예멘이 앞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밝혔지만, 문화부차관과의 인터뷰 결과, 살레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살레 대통령이 다시 취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선거는 2006년 9월에 있다.

(2) 알 후띠

사다지역을 본거지로 한 ‘신실한 청년단’이라는 뜻을 가진 강경 이슬람 단체로 친미 성향의 정부에 대항하여 2004년 전쟁을 시작 했다. 시아파 영성 및 신학 훈련 단체이기도 하다. 2004년도에 리더인 알 후띠는 죽고 그 아들은 영국으로 망명했다. 잡혀간 단원들이 정부로부터 고문을 당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하여 영국으로 망명한 아들이 예멘 정부를 UN에 제소한 상태이다. 2005년 10월경 예멘 정부의 한 부대를 기습해 10여 명이 사상되어 현재 전쟁이 격화 되었다.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알 후띠가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의 친미적인 성향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예멘 정부에 알 후띠에 대한 탄압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이란의 지원을 바탕으로 21세 미만의 청년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는 이들은 대통령이 아닌 이맘이 다스리는 왕국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부족 사회와 부족 정치

부족들이 모여 사는 지역마다 공공기관(동사무소 등)이 없고, 폐쇄적이어서 정확한 인구 수 파악은 불가능하다. 예멘 인구의 6~70%가 산 속, 사막 등에서 부족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각 부족마다 특성이 강하고, 서로간에 불신이 강하며 폐쇄적이기 때문에 부족에 들어가려면 부족의 족장(셰이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990년대 초 80%에 달하던 부족정치가 지금은 1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교육의 확대, 부족들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지원 중단, 민주주의의 확대에 의한 인식 변화, 신 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력들의 등장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셰이커들의 영향력 급 감소를 들 수 있다.

2) 사법 행정

(1) 법원

법관 구성은 대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 1급 판사, 2급 판사, 3급 판사, 1급 판사보, 2급 판사보로 구성되어 있다. 사나 소재의 대법원과 15개의 고등법원, 293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특수법원으로 사나에 가정법원과 종교법원인 샤리아 법원이 각각 하나씩 있다.

(2) 검찰청과 변호사회

검찰청은 법원과 비슷한 수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있다. 변호사회는 통일 이전에 있던 변호사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3) 운영방식

운영방식으로서 재산권 상사분쟁은 통일된 실정법에 따르며, 형사 및 가족 분쟁은 샤리아 법이 재판의 기준법이 된다. 또한 예멘 특유의 부족장 재판제도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인정되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4) 샤리아 법

예멘 헌법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샤리아에는 이슬람교도로서의 최대 의무 다섯 가지를 비롯해 목욕이나 참회의 방법과 같은 의례적 규범(이바다트)이 있다. 그리고 공·사법적인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결혼, 이혼, 비 무슬림의 권리와 의무, 상속, 매매, 증언, 소송, 범죄와 형벌, 나아가 전쟁 국제문제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것을 법적 규범(무아마라트)이라고 한다. 또한 이슬람법체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관계를 다룬 서유럽 법체계와는 매우 다를 뿐 아니라 법의 개념 자체가 서구적인 것과는 다르다. 서구의 형법이 유죄 또는 무죄를 판정하는 기준인데 반해 이슬람법은 삶의 도덕적인 측면도 포괄하고 있다.

샤리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필수적 의무를 뜻하는 와집(wajib, 의무)에 속하는 행위인데 이행하지 않으면 벌의 대상이 되며 이행하면 칭송의 대상이 된다

둘째,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행위인 만둑(mandub, 권장)이다. 이를 행하면 칭찬을 받게 되고 천국에서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행하지 않아도 비난 또는 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하나님의 관심이 걸여된 행위로 무바흐(mubah, 무관심)라 한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나 보상하지는 않으시며 또한 꾸짖으시나 벌하지는 않는다.

넷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로 마크루(makruh, 마음에 들지 않음)라 한다. 이 행위를 삼가면 보상을 받으나 행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행위로 하람(haram, 금지)이라 한다. 무슬림은 이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되며,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된다.

이 다섯 가지 인간 행위의 분류로 이슬람법체계가 형성된다.

샤리아는 통일된 성문법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러 학파의 복수적인 해석체계가 병존하고 있다. 샤리아의 규정이 도출되는 근거를 법원(법적 근원)이라고 부르는데 우선되는 법원으로는 꾸란과 개개의 사항에 대한 무함마드의 판단과 해설 언행을 전한 하디스가 있다. 세 번째 것은 무함마드 이후 무슬림 사이에서 일치점을 본 법 판단의 소산인 이주마이그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 앞의 세가지를 참고로 판단하는 키야스가 있다.

이슬람교도의 종교, 정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샤리아를 해석 적용시킴으로써 이슬람 공동체를 정신적으로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올라마 라고 한다. 예멘 내에서 기독교 포교활동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샤리아 법 때문인데, 샤리아 법에 의하면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정은 사형에 해당된다.

3) 대외 관계

(1) 다른 중동국가와의 관계

결프전 이후로 예멘 외교에 있어 중요한 나라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이디오피아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와는 1934년 국경분쟁이 발생하여 ‘예멘-사우디 전쟁’을 치른 적이 있으며, 전후 국경조약을 체결 1994년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었다. 1994년 말 양국간의 국경문제를 포함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고, 1995년

2월 양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했다. 오만과는 별 문제가 없는 편이며, 이디오피아와는 홍해의 섬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약간의 갈등이 있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예멘은 이라크와 가까운데 그것은 시아파가 정부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멘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원했다. 걸프전은 이라크의 패배로 돌아갔고, 그로 인해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 등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100만 명 정도의 예멘인이 추방되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도 역시 끊겼다. 이것은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왔고, 예멘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1995년에 들어 예멘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며, 아덴에 건설하려는 자유무역 지대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예멘은 아랍권에서 특히 요르단, 이라크 및 PL0와는 전통적으로 깊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집트, 시리아 및 UAE 관계는 과거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걸프전을 계기로 현재는 다소 소원해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경이 접하고 있는 사우디와 오만의 관계는 국경 문제로 인해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가 1934년 예멘의 북서부 지역에 대한 강제 합병을 합법화시킨 국경 조약이 1974년 예멘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1985년 쌀레 대통령이 이 지역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영토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1995년 1월 사우디-예멘간 국경분쟁이 재연되기도 하였다. 예멘과 오만의 국경 도화르(Dhofar) 지역은 19세기 후반 이후 오만의 영토가 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남 예멘 영토로 인정돼 온 지역으로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이란 이라크 전시에 북 예멘은 이라크를, 남 예멘은 이란을 지원하였다.

(2) 미국과의 관계

다른 중동국가가 그러하듯이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강한 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걸프전 당시 이라크를 지원한 결과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이 끊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소원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최근 예멘의 석유개발의 적극참여를 통해 우호 관계가 증진되어 가고 있다고는 해도 예멘 내의 미국에 대한 태도는 다른 아랍국가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3) 우리나라와의 관계

1987년 3월 우리나라의 대사관이 예멘에 세워진 바 있지만, 98년 12월부터 현재까지는 공관이 폐쇄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SK, LG,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과 SK(유공), 삼환, 현대, 유개공 등 4개사가 석유개발 투자에 나서 우호적인 태도이다. 그리고 특히 국민들의 북한에 대해 정서적인 우호도가 높는데, 북한의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그 이유라 한다.

4. 경제

1) 경제 일반

(1) 전체 개관

예멘은 중동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공업기반이 약하며, 예멘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저개발국의 전형적인 특징이 그대로 존재한다. 위의 특징들과 더불어 3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 GDP의 35%에 달하는 공채와 국가의 재정적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이 예멘의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개발 정책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나마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에서 일을 하면서 송금한 외화들이 국가 외화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 했지만 1991년 걸프전 이후 정부의 이라크 지지로 인해 이라크를 반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에서의 백만 명에 달하는 국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추방 당해 예멘으로 귀환하면서 경제의 기반이 한번에 무너지게 되었다.

농업의 경우 GNP의 20%와 경제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예멘에서 비중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많은 농지가 까트(Qat)³ 재배지로 바뀌고 있다. 까트는 일종의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로 예멘인들 다수가 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까트는 GDP의 1/3을 차지할 만큼 예멘 국내경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수산업의 경우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끼고 있는 좋은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판매량의 빈약과 냉장시설의 부족으로 수출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예멘에서의 광공업은 경제인구의 15%, GNP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성 높은 산업이다.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중공업 분야의 대부분이 국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식료, 의류, 보석 가공, 화장품, 담배산업 등으로 개인 기업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석유부문이 예멘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주된 산업이고 미래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석유의 매장량이 다른 아랍국가에 비해 적고 석유 개발이 상당히 뒤쳐진 상태이며 현재 시추공사를 통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석유의 양이 너무 적어서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예멘에서의 주요 수입품은 설탕 등의 소비재, 자동차, 유화제품, 식량, 목재 등이고 주요 수출 물품은 석유, 커피, 감자, 면화, 과일, 생선 등이다. 요즘 IT산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IT산업 독려 차원으로 컴퓨터 관련제품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판매하여 컴퓨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2) 농업

현 정부에서는 예멘이 가지고 있는 고원 산악지대의 쾌적한 기후를 이용해 농업을 발전시

³ 까트에 대한 문제는 5.사회문화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주요 곡물로는 수수, 밀, 보리, 옥수수 등이 있으며, 과일로는 포도 생산이 많은 편이다. 농업 인력 및 영농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커피, 면화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재배량이 적은 편이다. 특히 예멘이 모카커피의 원산지이지만 재배되는 커피의 양이 9000톤 정도이다. 이는 전체 커피 생산량의 약 0.2%에 해당하는 양으로 그 비중이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식품들은 대부분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멘의 농업에 까트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 까트의 경작면적 증대는 예멘의 농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까트가 다른 농작물에 비해 고 수익성 식물로 예멘내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경작 면적이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농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수산업

수산자원은 석유 다음으로 가능성 있는 부문이다. 주요 어종으로는 오징어, 참치, 고등어 등이 있고 지리적으로 홍해와 아라비아 해를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발전 가능성이 크다.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소말리아, 지부티 등의 근처국가들과 중계 무역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국들은 미국, 소련, 인도, 싱가포르 등이다. 1970 ~ 1980년대에 남 예멘의 아덴 수역에서는 구 소련이 대규모 조업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이 해역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조업을 하고 있다.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사회 간접자본의 부족, 유통과 판매망의 빈약, 냉장 시설의 부족 등의 영향과 국가의 재정적인 압박에 의해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 석유

현재 예멘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산업으로 예멘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마립 등의 3개의 광구에서 매일 35만 배럴이 생산되고 있고 더욱 많은 유전 발전을 위해 여러 기업들과 연결하여 석유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가스도 석유와 같이 예멘의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예멘정부가 2001년까지 LNG 프로젝트 사업을 벌여 생산과 액화 및 마케팅 부문을 향상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예멘에서 화력발전소를 만들고, LNG를 채취하는 등의 산업을 예멘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멘의 석유 산업이 늦게 시작된 반면에 현재 시추 가능한 석유의 양이 20년 내외이기 때문에 새로운 석유 매립지의 발견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예멘 안에는 석유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유를 수출하여 정제된 석유를 재수입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크다.

2) 해결해야 할 경제적 특성

(1) 통일과정에 의한 복잡한 경제체제

통일이전 북 예멘과 남 예멘의 정치체제가 달랐던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로부터 생긴 예멘만의 복잡한 경제체제가 있다. 북 예멘에서는 민간부분이 경제활동의 주된 메커니즘이었고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데 반해 남 예멘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와 경직된 가격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경제체제가 통일이란 이름으로 섞이게 되어 예멘의 경제체제는 정부가 통제와 제한을 가하는 자유시장원칙을 따르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2) 은밀히 거래되고 있는 지하시장

정부의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와 보복관세로 수입통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예멘내에 상당히 큰 지하시장(암거래시장)이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이는 비공식적인 조사가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예상되는 빈곤과는 대조적으로 대규모 소비재 수입을 하고 있는 예멘인들의 경제활동은 공식적인 데이터에서 제시된 것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보면 예멘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시장이 상당한 경제적 수입을 얻고 있다고 추론된다. 예멘의 지리적 특성상 사우디아라비아의 빈틈이 많은 국경선을 이용한 강력한 부족들에 의해 조직된 밀수 조직의 집산지며 종착지로 자리잡을 수 있다. 홍해를 통해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알코올의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다 지역에는 대규모 무기시장이 존재한다고 알려진다.

(3)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까트

많은 예멘인들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까트를 씹으며 시간을 보낸다. 공공기관에서도 까트를 씹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공식 업무시간조차 까트 타임은 쉬는 시간으로 지정해 놓아 그 시간에는 공식업무도 처리하기 힘들다. 이러한 예멘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인 까트의 재배는 다른 농작물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노동 인구의 약 20%가 까트의 생산과 판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수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까트 재배가 예멘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다.

(4) 해외이주자들의 경제생활과 실직자 문제

단기 이주자 혹은 장기 해외 거주자들의 송금 유입의 실제 규모는 현금 송금의 형태이기 보다는 가족의 네트워크를 통한 재화(goods) 송금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걸프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많은 해외거주자들의 강제귀환에 의한 실업문제도 상당하다. 걸프전 이전에는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며 외화를 벌어들인 100만명 정도의 해외 거주자들이 존재하여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나 걸프전 발발 후 정부가 대외 정책에 실패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노동자들이 강제귀환을 당하게 되어 외화유입이 많이 줄었으며 100만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문제를 정부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5) 경제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과 분석력의 부족

경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한계는 예멘의 특징 중 하나인 부족사회의 영향과 훈련된 인력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예멘의 지형의 사막지대와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부족의 경우 데이터의 수집 자체가 어렵고 입수하는 과정도 부족의 족장인 셰이커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의 입수가 힘들다. 또 교육 제도의 부족으로 고도의 자격을 갖춘 숙련된 공무원들이 소수로 존재하고 이들도 매우 한정된 분야에 소속돼 있는 실정이다.

3) 관광 사업

(1) 아라비아 반도의 관광사업의 추세

냉전체제가 끝나고 평화 기운이 시작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국이 앞을 다투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스라엘이 아랍 지역에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평화협상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성공함으로써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유럽 여행을 위한 아시아인이나 아시아를 여행하려는 유럽인들이 도중에 아랍 지역을 3-4일 정도 체류하면서 사막의 와디(Wadi) 오아시스, 열대 해저 등을 관광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광객의 증대추세와 더불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아랍의 몇몇 국가들이 관광사업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 UAE경우 고대 유적지나 명승지가 별로 없는데도 관광지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항공, 도로, 통신 등의 발달된 기간 산업과, 범죄 발생률이 거의 없는 완벽한 치안상태, 외국인에 대한 친절한 사회 분위기 등은 홍콩을 압도할 만한 쇼핑 천국이라는 점과 외화 반 출입이 허용되는 점도 큰 작용을 하고 있다. 오만의 경우 인구의 도시 집중률이 낮으며 이슬람교의 종교적 영향 등으로 서비스업종이 발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인도양을 접하고 있으며 산악 지대가 많아 지하수맥이 발달하였으며, 사막과 저수지 및 해안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은 사막 관광을 유명하게 만들고 있는 관계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현재 예멘의 관광사업

예멘은 부족한 홍보, 허술한 치안 문제, 계속 되는 부족간의 전쟁, 이슬람교의 배타성 등의 이유로 관광대상국가로서는 부진해왔다. 특히 예멘에서 외국인 납치는 심각한 사회적, 법률적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예멘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관광사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 또한 사람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정부의 정책, 개인 사업 등의 제도가 미비하며 제정의 큰 부족으로 인해 관광사업 전체적으로 투자가 매우 부족하다. 겨우 2개의 영어로 된 사설 주간신문(예멘 타임즈, 예멘 옵저버)만이 있으며, 미디어를 통

한 해외 홍보가 이집트의 1%정도의 수준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만이 국가 수반들을 만나며 예멘에 대해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다.

(3) 예멘 관광산업의 가능성

예멘은 2500년 이상부터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좋은 날씨와 홍해와 아라비아 해의 2200Km의 해안선, 500가지 이상의 빵과 부족마다 다른 수십 종류의 의류 등 개성 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예멘의 많은 문화유산들이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멘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나의 구 도시 밥알예멘(Bab ul-Yaman)은 지금까지 그 모습이 남아 있어 많은 관광객들을 모은다. 또한 하드라마우트 왕조의 중심도시 중 하나였던 쉬밤 또한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그 외에 압바스 왕조의 총독에 의해 건설된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 ‘의 중심지인 자비드, 사바 왕국의 수도인 마립이 있다. 이러한 유적지에 관광 상품의 개발과 인프라의 확충의 더 많은 투자가 가해진다면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멘의 경우 특히 순수한 이슬람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 들여 해저 관광 터널, 치안확충,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의 소개 등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예멘 정부의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관광산업에 투자할 자금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해외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기적인 정책운영과 외부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과 투자자 3자 모두가 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사실 치안 문제에서도 큰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성과 이방인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는 부족사회(가빌라)의 자체적인 관습이나 법에 의해 89년 이후 납치된 외국인 중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다른 중동국가나 영국, 미국 등에 비해 납치되는 사례가 적다고 한다. 단지 TV등의 미디어 매체에서 납치사건에 대한 확대 및 집중보도를 통해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 질 뿐이라고 한다.

(4) 관광사업을 위한 정부의 노력

홍보를 위해 유럽에서는 런던, 밀라노, 베를린에서 열리는 관광전시회에 참여 하였고, 9.11 사태 이후 유럽 관광객의 숫자가 줄어 홍보의 초점을 아시아로 옮겼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두 번씩 운행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도쿄와 싱가포르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또한 지금까지의 납치범들은 모두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등 납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아덴의 자유무역지대

아덴(Aden)항은 자유항으로서 예전부터 수에즈 운하와 가까웠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있는 교통 및 중계무역의 요충지로 발전했다. 예멘의 통일 이후 경제계획의 핵심은 높은 수준의 신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아덴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1991년 라마단 기간 동안 YFZPA(예멘자유지대공공당국-Yemen Free Zones Public Authority)가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YFZPA는 공업, 관광, 보관 및 분배 분야에 개발목표를 두고 있다. 예멘 정부와 YFZPA는 교육과 기술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지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예멘 정부는 한국, 일본 및 대만 등이 노동력의 기술개발을 위해 집중투자를 하였던 '아시아 모델'의 국가 개발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투자에 대한 수익은 노동력의 생산성 증대뿐만 아니라 선진화된 기술적인 생산과 관련된 고임금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믿고 있다.

예멘의 통일 이후 경제 정책 추진 내용은 신규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덴 자유무역지대를 최우선시하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이루고, 민간 부분은 합작을 통해 투자 활동을 유도하며, 자유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생산 활동을 권장하며 물가를 억제하고 과거부터 문제가 된 밀수를 근절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법령은 1993년 5월 통과되었다. 이 법은 자유지대 내에서 외국기업의 소유권과 비 예멘 고용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유화, 자유지대 내에서의 거래에 대한 관세 및 세금의 면제 그리고 토지, 물, 전기 및 기타 인프라시설에 대한 보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Raytheon은 25년의 기간 동안 아덴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58억 달러의 계획을 제시하였고, 국내 공항 및 항구 시설의 사유화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예멘 정부는 산업이 수출을 위한 농업, 수산업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의 개발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아덴항은 예멘의 경제개발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예멘 정부는 통일 이후 아덴이 자유지대가 될 것임을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구상은 대규모 투자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개발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불충분한 자본을 소유한 예멘으로서는 아덴항의 개발이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예멘에 대해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5. 사회 문화

1) 의식주

(1) 의복

예멘의 전통적인 의상은 혁명을 통해 왕조가 무너질 때까지 계속 되었고, 그 후 전통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사라졌으며 상당히 서구화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골이나 부족 공동체에서 전통적인 복장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① 남자

남자들은 스커트 비슷한 옷을 입고 허리를 벨트로 묶기도 한다. 고산 지대에서는 좀 더 긴치마 같은 모양의 잔나(Zanna)를 입고 그 위에 외투를 걸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복장 위에 잠비아(djambia)를 차는 것은 필수다. 티하마 지역에서는 밀짚모자나 흰색의 두건식 모자를 쓴다.

● 잠비아란?

현대 산업사회 속에서도 예멘인들이 자존심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 잠비아이다. 잠비아는 길지 않은 단도로, 신변 보호용이 아닌 예멘인들이 지키는 ‘전통’ 중 하나인 장식용 단도이다. 잠비아는 허리춤에 차게 되는데 가죽으로 만든 칼집에 넣어져 차게 된다. 예멘인들이 칼을 차고 다니기에 언뜻 보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예멘인들의 전통은 칼에 손을 대는 것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잠비아로 인한 사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예멘인들은 함부로 칼을 뽑지 않는다. 사소한 언쟁에서 치고 받는 싸움이 있을지라도 잠비아에 손을 대는 것은 최대한 절제한다. 만일 잠비아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살인 의도로 간주된다. 나아가 사소한 흥분이나 싸움에 손에 권무기를 아무 때나 휘두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잠비아를 통해 절제된 삶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획이기도 하다. 이러한 잠비아의 진가는 그것을 만든 재료, 특히 손잡이에 의해서 신분이나 부의 전도를 달리한다.

● 잠비아의 종류는?

나무로 만든 손잡이에서부터 짐승의 뿔이나 금, 은, 보화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잠비아를 있으며, 이 중 코뿔소의 뿔로 만들어진 손잡이는 으름으로 꼽히고 있다.

② 여자

여자들의 복장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전통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은색 스커트에 소매 없는 외투, 두건으로 이루어진 샤르샤프(sharshaf)와 좀 더 느슨한 형태의 검은색 코트인 아바야(abaya)이다. 머리에 쓰는 것, 샤르샤프, 아바야 등은 모두 이슬람 여인들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여성을 보호하고 남성들로 하여금 예의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티하마 지역의 여인은 다른 형태의 옷을 입는데, 우선 다른 지역에서처럼 베일을 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은 머리에 밀짚모자를 쓴다. 천도 반투명의 옥양목이 많은데 이것은 더위와 관련이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복의 특징을 몇 가지로 단순화시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비드의 여성들은 검은 색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일부 고산 지대의 여성들은 바지 형태의 시르왈(sirwal)을 입는다. 또 자수를 놓은 화려한 색상의 외투를 위에 걸치기도 한다.

(2) 식생활

예멘 사람들의 식생활은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편이다. 많은 부족들로 이루어진 국가여서 부족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개성 있는 음식들이 있다. 이들의 주식인 빵만해도 맛과 모양에 따라 종류가 500개 이상이라고 하니 예멘인들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

아침식사는 화덕에서 막 구워진 빵에 달걀 부침이나 토마토, 삶은 콩 등을 샤히(shahi)라는 차나 커피의 껍데기로 만든 끼시르(qishr)와 곁들여 먹는다. 점심식사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뤄지며 하루 식사 중 가장 성찬이다. 주로 빵과 함께 고기를 먹는데 참치 샐러드, 삶은 양고기, 오븐에서 요리한 닭고기나 닭 바비큐 요리, 잘게 썰어 야채와 함께 요리한 소고기 등을 먹는다. 남부 지역에서는 생선요리 등을 먹기도 하며, 낙타고기나 삶은 염소 머리 등을 먹기도 한다. 저녁 식사는 까트를 씹고 난 후 저녁 늦게 먹는데 점심 식사에 비해 가볍게 먹는다.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덜 개방되고 보수적인 예멘도 역시 서양 음식문화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다. 수도 사나에는 미국 패스트푸드점인 KFC와 피자헛이 각각 하나씩 있으며, 베스킨 라벤스도 두 개나 있다. 일반인들이 먹기에는 상당히 비싼 고급 외식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음식점이 아니라도 오븐에 구운 중동식 피자나 햄버거가 예멘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3) 주거 생활

흙집과 돌집 그리고 흙과 돌이 결합된 고층의 집이 가장 대표적인 예멘의 주거지이다. 예멘은 특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데, 두꺼운 벽이 낮의 더위를 막아주고 밤의 냉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좁은 창문 역시 기후와 관련이 있으며, 여름에는 햇볕을 차단하고 겨울에는 햇볕을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예멘의 전통적인 집은 기둥이 없고 서까래로만 고층의 건물을 지탱하는 수준 높은 건축 기술을 자랑한다.

고층의 주거 형태는 아래층으로부터 그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땅 위의 1층은 우선 가족이 사는 축사로 이용된다. 2~3층은 창고나 하인들의 방으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주로 1층, 부유한 집의 경우 3층까지 농업 또는 목축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다. 4층부터는 한 가정의 주거 장소로 쓰인다. 가족 공동의 거실

이나 응접실, 가족 침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상층의 한층 아래의 층은 가사실로 빨래 등 집안일을 하는 장소로 벽 밖으로 테라스가 있다. 그리고 최상층은 낮게는 4층에서 높게는 8~9층으로 주로 까트 모임을 하는 응접실로 되어 있다. 이곳은 이웃의 주민들이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게 치장되는 경향이 있다.

예멘도 역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점차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전통적인 주거 형태를 대신해가고 있다. 즉,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현대식 건물이 새로운 삶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나의 구 도시, 사다, 쉬밤, 티하마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사회구조의 특징

(1) 부족

예멘은 아직까지 중앙 정부와 연대 의식을 가지며 부족제도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 중 하나이다. 예멘 사회를 이끌어 온 두 개의 큰 축 가운데 하나가 이슬람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부족제도이다. 마립, 사나, 사다와 같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북쪽 지역에 부족제도의 전통이 보다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은 부족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예멘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즉, 부족제도가 예멘인이라는 정체성과 연대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다.

아라비아 반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부족과 유목민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예멘에서는 대부분의 부족민들은 정착하여 경작하는 사람들이다. 부족의 독자성은 그들 자신의 법을 가지고, 그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에서 확립된다. 부족민들은 회교도로서 살아가지만 일상생활에서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법을 따라 살지 않고 부족의 관례를 따른다. 부족주의는 상대적으로 남쪽에서 보다 북쪽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부족제도가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족 집단이 가지는 적응 능력이다. 과거 국가의 힘이 미약했을 때 부족은 어떤 지역에 모여 살면서 조직을 만들고 규범을 설정하여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했다. 왕조의 성립과 함께 국가의 힘이 강해졌을 때 부족은 국가를 지탱하는 강력한 지원 세력이 된다. 또 국가가 정치를 잘못할 경우 부족은 저항 세력으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1918년 예멘 왕국이 성립하면서 부족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부족은 국가 조직 속에 편입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부족은 억압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족들은 무장 능력에 있어 중앙 정부와 월등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 부족은 1962년의 혁명과 그로 인한 시민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왕당파와 이집트의 지원을 받는 공화파가 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북동부 지역에 있던 부족들이 왕당파에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예멘 아랍 공화국을 거쳐 예멘 공화국이 된 현재 중앙 정부의 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멘 또는 예멘인이라는 개념이 부족 또는 부족의 구성원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① 가빌라

가빌라(gabila)는 지역에 근거한 정치적 결사체로, 국가로부터 정치적인 자율권을 인정받고 있다. 부족들은 또한 다른 부족들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간섭하지 않는다. 이들 부족은 정착된 생활을 하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정육업이나 미용업에는 부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② 셰이커

부족의 지도자를 통상 ‘셰이커(shake)’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습된다. 장자나 재능이 있는 아들이 상속을 하는 경향이 있다. 셰이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분쟁의 조정이다. 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갈등과 불화의 해결에 앞장선다. 셰이커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잘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양측 당사자가 인정하는 카필(kafil)이 감시하게 된다. 그러나 부족간의 갈등은 마땅한 중재기관이 없어 서로 싸움을 하게 되거나 피를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셰이커 밑에는 각 가문의 지도자인 아길(agil)이 있으며, 이들은 셰이커와 부족의 구성원들 사이를 중재한다.

(2) 계층

부족 외에 예멘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계층은 4가지 부류로 나뉘지는데, 사다아라는 엘리트 귀족, 쿠다트라는 관리 계급, 가빌리라는 평민, 아크담이라는 천민이 그것이다. 아크담(Akhdam)은 70,000명 정도의 소수그룹으로, 주로 아랍과 아프리카 혼혈이다. 아크담은 종을 의미하는 말이고, 예멘 사람들은 이들을 아주 천대하여 이슬람 사원으로부터 축출되었고, 부랑자로 취급 받는다. 이들은 목욕탕 보조원, 가축공, 이발사, 도살장 일, 청소 등의 천한 일들을 한다. 이러한 계급이나 출신 성분이 개개인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여성들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계급과 출신 성분에 맞춰 결혼이 이루어지고, 직업과 삶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관습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3) 여성

예멘에서는 거리를 거닐면서 여성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예멘의 여성들이 남자들에 의해 주목 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항상 외부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또 간혹 여성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얼굴을 보기는 정말로 어렵다. 여러 가지 옷을 걸쳐 입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베일을 쓰기 때문이다. 예멘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프리카나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1) 베일

베일을 두르는 것은 가장 정숙함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베일을 히잡(hijab)이라고 하

는데, 대개 걸쭉한 검은색의 발토 위에 두른다. 사실 검은색 발토를 입기 시작한 것은 수십 년 전에 터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나, 점차 상류사회에서 유행되어 사회의 관습으로 정착되었다. 전통적인 예멘 여성의 옷은 밝은 색이었는데, 이러한 옷은 오늘날 가난한 여성이나 시골에 사는 여성들만 입는다. 발토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옷을 입는데 야하고 화려한 옷이 많다. 코란에서조차도 얼굴베일을 두르도록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예멘 여성들은 얼굴에도 베일을 두르고 다닌다.

(2) 남성과 분리된 삶

예멘에서 남성과 여성은 엄격히 구분되는 삶을 산다. 예멘의 여성은 외부인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예멘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다. 또 지역과 부족에 따라 여성들은 다른 삶을 영위한다. 남자 여자 모두 자신의 배우자를 첫날밤에서야 볼 수 있고 심지어 결혼식과 장례식을 할 때에도 남녀가 따로 행사를 한다. 역사와 전통 그리고 종교와 문화 등 다양한 배경 속에 형성된 여성의 삶, 그것은 예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3) 여성의 노동

가장 연장자인 여자가 집안일을 조직한다. 주로 시어머니가 식단을 결정하고 며느리나 아이들에게 할 일을 나누어준다. 집안일을 하는데 도시에서는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지만, 지방에서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젊은 여자는 물길는 일, 땀감을 줍는 일, 농사일등 힘든 일을 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동물먹이를 주는 일, 요리 등 덜 힘든 일을 한다. 아이들에게도 일이 주어지는데, 10살 정도의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시장에 가 물건을 사며, 여자아이들은 6살 정도부터 동물 돌보는 일, 물길는 일등을 하기 시작한다. 평범한 일들은 여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일들은 남자가 결정한다.

(4) 지형적 배경

예멘은 역사적으로 고산지대를 배경으로 삶을 이끌어 왔다. 그것은 끊임없이 받아 온 외침 때문이다. 외세의 침략이 예멘 사람들로 하여금 평지를 중심으로 문화를 이끌어 갈 틈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3,000년의 예멘 역사는 바로 외세의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였다. 그 척박한 산 속에서 삶을 이끌어 가야 했던 삶의 방식이 여성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가사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산악지대 생활은 고난 바로 그것이었다. 물을 길어 와야 하고,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땀감을 마련해야 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가축을 돌보는 일, 농사를 돕는 일, 애들을 돌보는 일 등 여유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산지 생활은 사람들간의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예멘의 여성들은 교류를 갖지 못했고 또 교육을 받을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했다. 2003년 예멘의 15세 이상 여성 중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률은 남성 29.5%에 비해 70%로 2배 이상 높다.

(5) 사회적 배경

계급이나 출신 성분이 개개인의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여성들도 이러한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계급과 출신 성분에 맞춰 결혼이 이루어지고, 직업과 삶이 결정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관습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60년대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성립되면서 시민의 권익이 신장되었고, 여성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상승되었다. 여성의 강인하고 정열적인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은 많아졌다. 또한 경제발전을 통해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것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 여기서 사회 참여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하지만 여성들의 존재와 그 능력이 인정 받게 되었다는 차원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은 눈부신 것이었다.

(6) 문화적 배경

예멘의 여성은 이슬람 세계의 특성 때문에 도시적인 삶이나 공동체적인 삶에서 제약이 많고 또 남자와 함께 하는 사회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여성들이 학교에 나간다는 생각은 아직도 사치이며 직업을 가지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학교의 수나 교사의 수가 부족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교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학교에 가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현재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교단에 서는 여성 교사들이 있다. 여성 교사의 양성, 그것이 바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예멘 정부가 취해야 할 커다란 과제이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부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성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폐쇄성이다. 가족 공동체의 틀에 안주하려는 삶의 방식이 현재의 상황을 가져온 것이다. 얼굴을 가리고 라도 남자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절반의 역할은 여성의 몫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7)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들이 가지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1983년부터 여성들도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혼이 허용된다.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일부일처제가 보편적이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 역시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남 예멘 지역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내지는 권리 행사가 훨씬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 남 예멘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지배하던 1960년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동등하여 남녀 합반에 직업을 가지기 쉬웠으며 이슬람 전통의상을 입는 대신 미니스커트를 입기도 했다고 한다.

예멘의 여성들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생활에는 비교적 눈뜨지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집단적인 토론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고 해결하는 민주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오후에 마을에 모여 전통적으로 행하는 토론인 타프리티는 예멘 더 나가서는 아랍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중매나 결혼이 이루어지고, 물건들이 매매되거나 교환되고, 정보나 경험이 서로 주고받아진다. 가정의 대소사를 의논하여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마을의 현안들이 토론되기도 한다. 겉으로는 남성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 같지

만 실제로는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사회보다도 큰 셈이다. 예멘의 여성은 보이지 않게 사회를 위해 기여를 하고 또 이끌어 가는 것이다.

(8) 결혼과 이혼

결혼은 자유 연애가 아닌 가족의 중매로 시작되어서 본인들의 의사나 가족에 의해 결정이 된다. 서로의 이성애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문화적인 제약과 관습으로 인해 이성교제는 마치 금기와 같다.

일부다처제에 대한 여성의 생각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남편이 원하면 어쩔 수 없다는 수동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여성들은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 공부를 좀 더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어린 아이들이 많아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결혼할 때 신랑은 신부에게 돈이나 선물 등을 지불해야 한다. 지참금의 금액은 사회적 위치, 부의 정도, 신부가 처녀냐 아니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론적으로 지참금은 신부의 재정적 안정과 이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지불되나, 실질적으로는 신부는 일부분(1/10-1/2)을 받고 나머지는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부의 형제가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으로 다시 사용되기도 한다. 지참금의 의미는 자식이 어머니의 계보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의 계보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방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예멘 여성들은 지참금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며 지역마다 지참금의 금액도 차이가 난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혼은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에 남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남편이 경제적인 의무를 행하지 못하였거나, 죄를 지은 증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이혼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남편을 살해하고 감옥에 갇힌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이 이혼을 제기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 측면인 것이다.

남자의 경우에 이혼하기가 훨씬 쉽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2명의 증인이 있고, 몇 가지 단순한 질문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놀랄만한 사실은 지방의 15-20%의 여성들이 이혼을 당했고, 이들 중 때로 13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당하였다가 다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 당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는 불임의 책임이 여성에게 돌려지기 때문이다. 만약 여자가 본인이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나이트 남자나 둘째 부인으로 재혼하기도 한다.

이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엄마가 아이들을 청소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고, 그 후에는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신부는 아버지나 남자 형제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참금의 전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9) 현재의 변화된 모습

해외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 노동력이 벌어들이는 외화, 그곳에서 그들이 누려 온 소비생

할 패턴이 예멘 사람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T. V.나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이 여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식시켜 주었고, 여성들의 가사노동을 줄여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고,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적인 의미의 소비재가 가지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여성들은 아직도 물을 길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하고 나무를 하기 위해 산을 올라야 한다. 또 농사를 위해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하고 가축을 돌보아야 한다. 예멘의 여성들이 하고 있는 노동 중에서 농업과 목축에 들이는 노동력이 전체의 3/4에 달하고 있다. 여성은 아직도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충실한 역할이라는 필수 과제 외에 생산을 위한 노동력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유와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론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5% 정도의 여성만이 공공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예멘의 현실이다. 법조인과 정치인이 되는 길은 여성에게 완전히 막혀 있다. 그러나 이제는 농업이나 목축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2차 또는 3차 산업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사회 문제

(1) 까트

① 까트란?

까트는 많은 예멘 사람들이 즐기는 독특한 기호품이다. 점심식사가 끝나면 예멘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에 모여 까트를 씹으며 대화를 즐긴다. 한쪽 뺨에 잎을 가득 집어넣어 공처럼 둥글게 만들고는 씹어 물이나 차와 함께 그 즙을 삼킨다. WHO의 연구에 의하면 까트에는 교감신경 말단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는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있어 자극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까트를 씹기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면 카틴과 카티논이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체온과 혈압, 맥박수가 높아지며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흥분을 하게 된다. 비단 오후 까트파티 시간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층에서 주택 보수작업을 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시에도 까트를 씹을 정도로 예멘과 까트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뭇잎들은 신선해야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재배산지로부터 예멘의 다른 지역으로 운송되어서 소비되고 있다. 이러한 환각제의 남용으로 중요한 경작지의 대부분이 까트만 재배하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작물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태이다. (1998년 까트를 재배하는 농가의 90%가 1970년대에는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던 땅이라고 한다.)

② 까트의 허용 여부와 부정적 효과

까트는 예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까트에 들어 있는 환각 성분 때문에 까트의 허용 여부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 16세기 이슬람 학자들은 코란에서 까트를 금하고 있지 않지만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다. 1990년 예멘이 통일되기 전

까지 북 예멘은 까트를 허용했으나, 남 예멘은 까트를 금지하고 있었다. 통일이 북 예멘 주도로 이루어진 지금 예멘 전역에서 까트가 허용되고 있으며, 문화적인 측면이 아닌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까트는 식욕 감퇴, 불면증, 신경과민, 위염, 변비, 무력감 등의 질병을 야기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까트가 농업 부문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나치게 높다. 많은 사람들이 월수입의 30%에서 많게는 절반 이상을 까트 구입에 쓰고 있다. 까트를 씹음으로 생겨나는 오후 시간 3~6시간 정도의 공백시간과 까트를 씹은 후의 무력감이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본다. 이는 까트를 씹기 위해 하루에 총 예멘 남성들이 2천만 시간씩을 소모하고 있다는 통계만으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③ 예멘인들의 까트에 대한 인식

예멘 사람들은 까트를 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 까트를 씹으며 대화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으로,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고 결속시켜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건강과 경제적인 이유로 까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④ 까트에 대한 견해와 해결책 - 예멘 문화 관광부 차관과의 인터뷰

까트의 사용으로 인해 마약 사용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극히 적으며 까트로 인한 사고나 문제가 많지 않다고 한다. 이슬람에서도 까트가 용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적인 문제도 없다고 본다. 단지 불면증, 위장장애 등의 건강문제와 재정, 시간낭비와 같은 문제가 있다. 즉 까트는 마약과 같이 중독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기호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는 까트를 씹을 수 있는 날을 정하는 방법과 세금을 더 붙여 까트의 가격을 높이는 방법, 공공장소에서는 까트를 금지시키고 미성년자들이 까트를 씹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방법 등을 예상하고 있었다.

(2) 납치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로 납치가 있다. 최근 들어 예멘에서도 유럽권 여행객을 상대로 납치가 빈번히 발행하고 있다.

① 이유

이러한 납치의 이유는 각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각 부족들이 중앙정부에 갖는 불만과 그들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데 기인한다. 이들의 요구는 기본 생활에 관계된 수도, 전기, 보건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것들로, 외국인들을 납치하여 외국 정부나 예멘 정부의 주의를 사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자기 부족민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납치를 벌리기도 한다. 미디어를 통해 국제사회에 납치문제가 알려지기를 꺼리는 정부의 반응이

적극적임을 노린 것이다.

② 문제점

예멘의 부족 공동체인 가빌라의 관습과도 같은 법에 의하면 여성과 이방인들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에 일어난 납치사건에서 인명의 피해가 일어난 사례가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1980년대에 일어난 납치사건에서 16명중 4명의 사상자가 난 것을 보면 이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수의 총기가 나라 곳곳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인명 피해의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납치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예멘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관광사업 뿐 아니라 초보단계에 있는 자유시장 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다.

(3) 경제적 어려움

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상인들이 남성이었고,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많은 소일거리 들을 하고 있었다. 상점들이 12시부터 4~6시까지 영업을 멈추고 까트 씹는 시간을 갖는다. 상점에서 주로 파는 물품들이 잠비아 (예멘 전통 칼), 액세서리, 곡물류, 의류 및 생활 잡화들이었다.

길거리에 다니거나 차를 타다 보면 주로 발토를 입은 여인과 노인들, 아이들이 구걸을 한다. 도로변에 허름한 나무 움막을 만들고 손가락으로 돈을 달라는 표시를 하는 여인들, 물 호스를 틀어 놓고 세차 신청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무화과와 까트를 봉지에 넣고 파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러한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밝은 미래를 꿈꾸기 보다는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그들의 학력이나 자격증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단순한 생활을 영위하였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로 경쟁적인 모스크 사이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중들이 더욱 교리적인 독단주의가 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정부가 자신들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난 받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곧 근대주의라고 여겨지고 있어 일반 대중들이 반 근대주의로 돌아서고 있었다. 그리하여 현 체제를 폭력이나 내전으로 뒤집으려는 일들이 발발하고 있다.

(4) 교육 체제

국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는 무료 교육을 하고 있다. 대학 또한 국립대에 한해서 학비가 매우 저렴하다.(2005년 기준 국립 사나대학교 교육학과의 경우 입학비 6000리얄이며, 학기마다 학생증 갱신비로 1200리얄만 지불한다.) 사립학교는 매우 비싸서 초등학교의 경우 일년에 200 달러와 100달러 정도의 추가비용이 든다. (스쿨버스, 영어교육비용 등) 교육열이 높아서, 소수지만 중산층의 경우 사교육열도 높다.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영어학원과 컴퓨터 학원이 인기이다. 지방의 경우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가 최종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① 사나 대학

영어 교육과 강사인 압두살람의 가이드로 사나 대학 구 캠퍼스 박물관을 관람하고 신 캠퍼스에서 현지인 교수들과 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사나 대학교는 예멘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대학교로써 현재는 예멘 제일의 대학교이며 총 11개의 학부가 있다. 국립 대학으로 대학 내에 모스크가 하나 있으며 쿠란 교육학과와 이슬람 교육학과가 있다. 현재는 한국에 관련된 어떠한 학과도 없지만 현지인 교수들이 한국과의 교류 증대라는 흐름 때문인지 한국 대학교와의 교류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영어학과의 경우 학생 남녀의 비율이 대략 1:7 정도였으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사나 출신 학생과 지방학생 비율이 1:1 정도였으며 지방에서 온 학생들은 학교 근방에 위치한 학생전용 호텔에서 생활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따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유학을 희망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문화와 미국이 가진 부와 교육수준은 동경하며, 외국인들이 아랍국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

② Technical Educational Vocational Training School

세운 지역의 유일한 공업기술 학교로서 전기부, 전자부, 자동차 정비부가 있으며, 취업 전망이 매우 밝다. 3년제 학교로서 전교생이 316명 인데 입학 위해서는 시험을 쳐야 하며 4:1의 높은 경쟁률을 지니고 있다. 한 반에 30명 정도로 나누어 지고 학부제로 구분된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 독일정부가 도와줬으며 현재는 예멘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선생들은 공무원들로서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일을 하기도 한다. 현재 무선통신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으며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이었다. 도서관과 컴퓨터가 있으나 실제적인 사용은 잘 되고 있지 않는듯하다.

학생들은 사나나 주변 선진국으로 유학을 희망한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반감은 매우 높아서 미국유학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5) 개인의 총기 보유

① 문제점

예멘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은 법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너무 많은 수의 총기가 예멘에 존재하고 있다. 총기의 수가 8000만이라는 추정적 통계가 나왔는데 이는 예멘 전체인구가 2000만 명임을 고려하였을 때 한 사람당 4자루의 총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예멘에 폭동이 일어날 경우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005년 기름과 가스의 값이 두 배로 뛰었을 때 시민과 군대와의 충돌로 20명의 사상자가 난 것을 보면 이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해결의 어려움

예멘정부도 이러한 과다한 총기 보유 수 때문에 정책적으로 총기의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 정부에서 시도하는 방법으로 총기를 나라에 반납하였을 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시민들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기의 반납을 꺼려하고 있다.

6. 예멘의 기독교

1) 고대 기독교 역사

(1) 유대교의 전파

시바 여왕 빌기스의 솔로몬 방문(왕상 10:1~13)으로 인하여 예멘은 약 BC 9세기에 유대교가 전파되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었다고 한다. 이 당시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멘으로 이주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유대인 부족(야후두라 불리는 유대 예멘인 15000명 정도가 사나 북쪽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의 시초였다고 본다.

(2) 유대교의 번성(1세기 말~ 4세기 초)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Titus)에 의해 예루살렘이 정복됐다. 이로 인하여 예멘으로 많은 유대민족이 유입되었고 유대교가 융성하게 되었다. 당시 아라비아 지역이 범신론적이고 타 종교에 대하여 수용적이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등도 많이 수용되었다고 한다. 그 후 3세기부터 4세기까지 남 아라비아를 통치하던 힘야르(Himyar)제국에서 유대교가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아랍사람들이 적으로 생각해 오던 비잔틴제국과 에티오피아(Abyssinia)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4세기에는 상당한 수의 아랍사람들과 아랍인들이 유대교인이 되었다.

(3) 기독교의 전파(4세기)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틴 2세에 의해 예멘으로 파송된 데오�필로스(Theophilus)에 의해 교회가 처음 세워졌다고 한다. 그는 사나, 마카, 마립, 나즈란, 스코트라 등지에 네스토리우스 교회(Nestorian churches)를 개척하였고, 최소한 4명의 주교를 세웠다. 또한 라비아족과 코다족을 기독교화 하는 등 많은 선교활동을 했다. 당시에는 이교도들의 성지였던 나즈란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한다.

(4) 유대교와의 갈등(4세기 말~ 6세기 초)

430년에서 450년 사이에 힘야르 제국의 왕가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고, 힘야르 제국의 유대교인으로서의 마지막 왕인 야습(Yasuf As'ar)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였다. 당시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 당했다. 나즈란의 마을들이 약탈당하고, 수 천명의 수도사와 처녀들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나즈란에서의 기독교인 학살은 AD523에 일어난 일로 기독교 성문서(hagiographies)와 코란에 기록되어 있다.

(5) 기독교의 융성(6세기~7세기 초)

힘야르 제국에서 행해진 대학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티노플에서 황제에게 유대교를 대항하도록 도움을 청하였고, 황제는 아라비아에서 가장 가까운 기독교 국가인 이디오피아에 중재를 청하였다. 그 청을 받아들인 이디오피아의 황제는 525년에 군대를 보내어 힘야르 제국을 정복했다. 이 때 이디오피아의 군대는 유대교도들에게 양갓춤으로 대량학살을 자행

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멘은 다시 피로 물들게 되었다. 그 후, 힘야르 제국에 의해 무너진 교회들은 그 자리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힘야르 제국 이후에, 아브라하(Abraha)가 왕으로 다스리던 525년부터 575년 사이에 기독교가 예멘의 국교가 되었다. 그는 정의롭고 온건한 왕으로 기록되었으며, 종교적인 열심 또한 매우 강하여 예멘의 영적 부흥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때 많은 수의 유대교인들이 다파(Dhifar)라는 지역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많은 우상숭배자들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나에 거대한 알 칼리스(al-Qalis) 대성당이 세워지게 되었다. 568년에 케나네(Kenaneh)종족의 한 사람이 교회를 부정하게 더럽혔는데, 아브라하는 격노하여 흰 코끼리부대를 보내어 케나네족이 거주하는 지역인 카아바를 파괴하려 하였다. 그러나 좁은 협곡을 행진해 갈 때 바위들 때문에 코끼리들이 놀라게 되고, 군사들이 코끼리로부터 떨어져 밟혀 죽게 되어 코끼리 원정은 실패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코란의 코끼리 장에 기록되어 있다.

(6) 기독교의 쇠퇴

기독교가 예멘 땅에서 세력을 형성하던 3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부터 부패와 분쟁, 분열,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퇴색시켰다.

결국 575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가던 기독교는 페르시아의 지방장관이던 바드한(Badhan)이 628년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사실상 그 세력을 잃게 된다. 그리하여 628년은 예멘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인 역사적인 해가 되었다.

2) 예멘의 선교 역사

(1) 기념비적 선교사들

예멘 내지로 들어간 최초의 선교사는 하이그(F.T Haig) 소장으로서, 그는 다른 선교단체들이 예멘의 여러 곳에서 일하도록 하는 동원가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Church Missionary Society’ 라는 단체는 호데이다에서 의료사역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터키에 의해 강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1856년 스텐(A. Stern)목사는 사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가지고 사나로 선교여행을 하였었다.

예멘의 현대선교에 있어서 2명의 주목할 만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케이스 팔코너(Ion Keith Falconer)이다. 그는 1884년에 선교를 위한 탐사여행을 하고, 이후 1886년에 아랍인들을 복음화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의 아내와 함께 아덴으로 파송되었다. 그러나 겨우 10개월 후 7번째의 고열에 때문에 결국 3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는 아덴 외국인 묘지에 묻혔으며, 예멘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집중시킨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선교사는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로서, 1889년에 아라비아반도 내지선교를

위해 설립된 ‘American Arabian Mission’ 이라는 단체에서 파견 되었다. 그는 특출한 무슬림 학자로서 아랍세계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1882년에는 판매된 성경이 620권이었던 것이 이 선교단체를 통하여 1899에는 2,464권을 기록하였다. 그는 1년에 4회씩 ‘The Muslim World’ 라는 정기 간행물을 쓰고, 여러 권의 책과 통계자료들을 발표하여 무슬림 사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들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다. 그는 1952년에 사망하였다.

(2) 현대 선교 역사

1839년	아덴에 성공회 목사 파송
1964년	미국 남 침례교회 의료팀 타이즈와 지불라에 병원운영 시작
1969년	홍해선교회(Red sea mission)에서 야림에 진료소 개원
1971년	WEC 의료팀 사다 국립병원에 의료팀파송
1973년	마더 테레사 수녀원에서 예멘정부의 요청에 의해 의료팀이 호데이다와 하므르, 사다에서 사역시작. 5명의 자매들이 그 해 8월 도착하여 사역베이스 구축
1994년	홍해선교회 사나에 영어학원 개설
1995년	아덴 성공회교회 메디컬센터(RAS MORBAT CLINIC) 운영시작
2002년	남 침례회 소속 선교사 3명 지불라 병원에서 과한의 총에 맞아 순교
2006년	Open Doors, OM, Arab World Ministry, WEC, YWAM, Interserve, Wycliffe, Red sea mission, Frontiers 등의 국제 단체와 국내 단체로는 HOPE, 바울선교회, 중동선교회에서 장단기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단기 선교사들의 정확한 수치 파악이 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총 150~200명 가량의 선교사가 있다고 한다. 최근 5년 들어 방학을 이용한 단기팀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장기 선교사들의 수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3) 조사된 사역

① 아덴 성공회 교회

1839년 영국의 Aden 장악 이후부터 무역상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였고, 1863년에는 교회가 세워졌다. 1965년 시민전쟁 중 모든 선교사가 추방되었다가 1968년에 몇몇 선교사 들이 다시 돌아왔다.

1973년 공산정부가 모든 선교사를 쫓아냈으나, 통일된 후 사이프러스 성공회 주교의 요청으로 1992년 크게 훼손된 교회를 반환 받았다. 10년에 걸쳐 어렵게 교회를 보수하여 지금은 예멘정부의 요청에 따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의 이름은 ‘RAS MORBAT CLINIC’ 이며 현재 성공회 교회에 목사님으로 계신 피터 목사님과 낸시 사모님께서 팀장으로 운영하고 계신다. 교회에는 주로 남아프리카 어부들, 이디오피아인들이 출석 하고 있으며, 아덴에서 사업중인 한국인도 한 명이 출석 중이다.

의료사역은 1995년부터 시작했으며 현재 안과,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를 하고 있다. 20명의 예멘 직원들로 구성 되어 있다. 개원 4년 후 안과진료를 시작했고 2005년에 약 2만 명의 환자가 진료 혜택을 받았으며 약 1200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현재 산부인과는 전문의사가 없어 운영이 되지 않고, 소아과는 두 명의 일반의가 진료를 하고 있다. 산부인과는 곧 조산사가 올 예정이다. 체계적으로 환자 관리를 하는데 가족별로 진료 기록을 남겨 전산 처리한다. 개인 환자 카드를 만드는 데는 200YR 이며 가족 카드를 만드는 데는 700YR이다. 접수비를 제외한 진료비와 약값은 무료이다. 약국에는 두 명의 약사가 있으며 약은 기본적인 약뿐이다. 주로 이집트와 시리아산 약을 사용한다. 특별한 약은 원가로 공급한다. 안과 1층 검사실과 진료실에 2명의 여자 의사가 있다. 2층 수술실에는 한 명의 전문인이 일하며 쿠바인 안과 수술 전문의사가 있다. 진료시간은 8시~13시며 앞으론 초음파와 ECG 기계가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안과 수술 비용은 7000YR(예멘인의 평균적인 한달 월급 수준)이다. 다른 병원은 이의 5배의 가격을 지불 해야 하기 때문에 예멘인의 반 이상의 안과 수술이 이 곳에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의사 월급은 300\$ 정도 이며 일년 동안의 병원 유지비가 12만\$인데 8만\$은 중동과 유럽 지역 성공회 교회 헌금으로 후원이 되고 나머지 4만\$은 진료 수입으로 충당 하고 있다.

- 병원 사역을 통해 예멘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사례
 - i. 이집트 기독교인 의사 두 명이 병원에 근무한 적이 있었다. 예멘 의사들은 처음 본 아랍계 기독교인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으며 성실하고 실력 있는 그들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다. 또한 이들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바뀌었다고 한다. 병원의 리더인 피터 목사는 이집트 및 요르단 등지의 아랍계 기독교인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멘 의료사역 팀에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 ii. 얼마 전 한 자매가 교회에 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집에서 악령이 들렸다고 폭력을 일삼기도 하며 묶어놓고 코란을 읽기도 한다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이웃의 친구가 아덴의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했는데 이 병원과 처음 만난 외국인 목사에게 호감을 가져 혹시 모르니 가서 기도 받아 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주시고 계속 연락 달라고 한 후 돌려보냈다. 병원에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간 예멘인들이 병원 옆에 있는 교회까지도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 구체적인 필요들
 - i. 산부인과에서 일할 수 있는 조산사와 안과 진료가 가능한 기독교인 의사(선교사)가 필요하다.

- ii. 현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랍계 기독교인 의사가 필요하다.
- iii. 전문적인 의료 팀장이 필요하다.

② 사다 국립병원 의료 팀

1972년부터 WEC 파송 네덜란드인 부부 선교사(Hulf & Truus)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에 20여명의 선교사가 사역을 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 선교사들은 공식NGO로 등록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집, 수도, 전기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현재는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미국, 호주, 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의사, 간호사, 조산사, 조무사, 정비사, 행정 담당자 등의 팀으로 구성되어 일한다. 1984년도에 정부에 병원 운영권을 이양한 후 지금은 예멘인이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총 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0여명은 전문인 의사이다. 7~8년 전만 해도 러시아, 요르단, 수단 등지에서 유학하고 온 의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수도 사나에서 공부한 젊은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진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입구에서 50YR을 주고 접수증을 산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과에는 한국에서 6년 전에 들여온 장비 2기와 2년 전에 일본 대사관에서 기증한 돈으로 구입한 브라질 장비 1기가 있다. 안과에는 최소한의 검사만 가능한 기기와 낙후된 초음파 검사기가 있다.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여서 큰 수술 하기가 까다롭다. 분만실과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한다.

지금은 사다지역에 또 하나의 병원인 쌀람병원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래 쌀람 병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독교의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세운 병원이다.

● 구체적인 필요들

- i. 예멘인들은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부정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병원직원으로 등록만 되어있고 일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다. 예멘인들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행정부와와의 원활한 의사 소통이 있어야 한다. (행정부에서 의료팀과의 협의 없이 러시아나 중앙 아시아 출신의 의료진들을 채용하기도 한다.)
- ii. 안과 수술장비와 레이저 치료기
- iii. 더 많은 조산사와 병동. 특별히 마취과 의사의 보충이 시급하다.

③ 성경 번역 사역

번역이 완료된 클래식 아랍 성경 ‘프사’ 중 구약 중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하드라마우트 방언으로 번역한 후 극화하여 녹음한 후 전도용으로 배포하는 사역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사도행전 마무리 번역 작업이 진행 중이다. 무슬림들은 성경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된 책은 부정하게 여겨 보지도, 만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듣는 것은 거부감이 덜하여 현지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에 관하여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극화 작업과 녹음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모든 번역과 극화 작업이 마무리되었고 지방사람을 구하여 이집트에서 녹음하고 배포하는 사역이 남아있다.

- 구체적인 필요들

- i. 번역된 성경을 녹음할 성우를 구해야 한다.
- ii. 녹음 작업을 위해 이집트까지 몰래 사람과 물자를 날라야 하며, 배포루트를 정해야 한다.
- iii. 번역을 도왔던 현지인이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서야 한다. 하드라마우트 지역에서 녹음된 성경 테이프를 전도사역을 감당할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한다.

- ④ 미국 남 침례교회 소속 의료 선교 팀

1964년 타이즈 공동묘지 부지에서 메디컬 센터 시작하여 현재는 지불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 초에 지불라 병원에서 3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다. 한 청년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불만으로 지불라 병원에서 일하던 미국인 3명을 총으로 사살 했으며 그 사실은 지역 예멘인들에게도 슬픈 소식이었다고 한다.

- ⑤ Red Sea Mission Team

1969년부터 정부와 협력하여 야림에 진료소를 개원하였으며, 1981년 중반부터 예멘을 떠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1994년에 사나에 새로이 영어교육 센터를 개설하였다.

- ⑥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교

- i. 라디오

기독교 방송국이 허가되지 않고 있으나, 예멘 정부는 위성을 통한 방송을 제재하지 않는다. 방송국을 통한 아랍어 선교방송을 예멘에서 청취할 수 있다.

최근 2~3년간 예멘 안에서 방송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실제로 라디오를 통한 회심자들이 많이 있고 선교사들과 연결되어 양육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라디오 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는 개인적으로 지난 14년 동안의 반응자 수보다 작년에 연결된 반응자에게 성경 준 것이 더 많다고 밝혔다. 회심자들에 대한 사역도 은밀히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ii. 텔레비전

지금만 가정마다 위성TV가 보급되어 마음만 먹으면 한국과 다른 아랍국가의 기독교 방송을 얼마든지 청취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폐쇄적인 이슬람사회의 특성상 TV를 즐기지 않는 예멘에서 TV를 통하여 회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어볼 수 없었다.

- iii. 인터넷

2000년대부터 예멘의 정보화 장려 정책에 따라 컴퓨터가 매우 싼 값에 팔리고, 한 달에 120시간을 사용 할 수 있는 ADSL 모뎀 사용이 1200YR로 보급되고 있어서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또한 오랜 독재와 사회주의의 틀 속에서 갇혀있던 예멘인들에게 정보가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예멘 선교 상황

(1) 장벽들

① 사회에서의 추방 및 사형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듯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한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서 타 문화와 고립되어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족민들에게 개종은 사회적 일탈에 해당한다. 개종자들은 종종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서 쫓겨 나가거나 가족과 친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예멘이 헌법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샤리아법에서는 무슬림에서 다른 종교로의 개종은 사형에 해당한다.

② 이슬람 교육으로 인한 거부감과 반미감정

쿠란과 하디스(무하마드의 생애와 가르침의 기록들)에 의하면, 성경은 변질된 것이며 부정한 내용들이 실려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려서부터 가족과 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받아온 이들은 성경을 부정한 책으로 여기고 성경에 손을 대는 것조차 싫어한다. 또한 반미감정을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은 모든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서양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들의 사회에 서양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종교인 기독교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③ 자부심

예멘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 깊은 역사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슬람을 받아들인 첫 번째 국가라는 자부심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 강하다. 사다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하마드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관계를 최 우선 순위로 하며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예멘인들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④ 결혼과 여성들

사나, 아덴과 같이 대학교가 있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십대의 나이에 결혼을 한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많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결혼 후 믿음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대략적인 예멘인 기독교인 남녀 비율이 9:1 이

라는 것 만 봐도 여성에 대한 개방성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형제들의 경우 20% 가량은 결혼 후 무슬림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 부부가 함께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80%는 무슬림과 결혼 후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⑤ 다양한 부족사회

예멘은 1500여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각 부족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 이들 각 종족에 대한 사전 리서치가 아직 전무한 상황이며 보수적인 부족장들의 허락이 없으면 부족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다. 부족의 관례나 법에 의해 외국인과 여자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손님으로서의 대접이다.

⑥ 언어

아랍어는 코란 아랍어, 클래식 아랍어, 현대 표준 아랍어, 지방 아랍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실 표준 아랍어인 프사는 그 사용빈도가 매우 적으며 예멘의 수도인 사나에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프사를 알지 못했다. 불편함 없이 사역하려면 많은 종류의 아랍어를 익혀야 하며 10년 정도의 아랍어 학습의 기간을 가진 후에야 무슬림들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 한 선교사의 경우 요르단에서 2년동안 아랍어를 익힌 후 다시 예멘에 와서 5년동안 아랍어를 공부한 후에야 아랍어 사용에 편안함을 느꼈다고 했다.

⑥ 문화적 장벽

성경에 나오는 문화적 배경과 현재 예멘의 문화가 비슷하여 예멘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 서양인과 동양인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 예를 들자면 예멘인들의 의식구조에는 죄를 짓는 것보다는 수치를 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한 죄 씻음은 예멘인들에게 의미 없이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 몸을 드러내셔서 인간들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다는 개념으로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인간들은 주님께 수치를 주고 저주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늘의 명예와 영광으로 바꾸어 놓으셨음을 설명하는 것이 예멘인들의 의식구조 안에서 십자가를 보고 감동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 또한 예멘인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여러 비유들을 써가며 이야기 하신 것처럼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익숙하다고 한다. 이처럼 예멘의 문화를 알고 예멘인의 관점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2) 오늘날의 기독교 현황

예멘 전체에 예멘인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없으며, 북예멘에서 유일한 기독교인 모임이 1974년에 해체되었다고 한다. 예멘 기독교인들은 서로 고립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변 노출이 되는 것을 꺼려하며 특히 다른 예멘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해 소그룹으로 모이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나에는 Kentucky, Western, North, Unknown(미 조사) 이라 불리는 4개의 국제 교회에서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며, 인도인들을 위한 교회 15개와 필리핀 인들을 위한 교회 1개가 있다. 국제 예배에는 예멘인들은 참석할 수 없으며(종교경찰의 감시) 서양인과 한국인 선교사들, 필리핀인, 인도인, 이디오피아인, 몇몇의 아랍인 기독교인들이 있다. 또한 아덴에는 예멘정부가 허가한 성공회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다.

현재 예멘에 있는 많은 이디오피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 그들은 그들만의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으며 그들의 방식으로 매우 열정적인 찬양집회와 말씀선포를 한다. Kentucky fellowship의 경우 금요일(아랍세계는 금요일이 주일이다) 국제교회의 예배가 끝난 후 이디오피아 인들만의 예배가 오후에 열리며 아덴 성공회 교회에서도 목요일 저녁에 이디오피아인들만의 예배를 드린다. 1992년에만 6개월 사이에 60명의 이디오피아인들이 비밀리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예멘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실은 선교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라디오사역을 통한 회심자의 증가이다. 13년 전에 20여명에 불과했던 선교사들의 수가 지금은 약 200명이 되었고 그 중 150명은 최근 5년 안에 파송되었다. 또한 예멘은 아랍국가들 중에서 복음방송에 대한 반응도가 가장 높고, 지금은 이전에 기대 할 수 없었던 소그룹 양육과 현지인 선교사 양육이 진행 되고 있으며 기독교출판물을 예멘 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쇄 프린트 기의 구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가 만난 한 선교사는 몇 개의 소그룹과 3명의 예멘인 목사 지망생들을 양육 중에 있다고 했다.

(3) 중동의 열린 뒷문

① 예멘 이슬람의 특성

예멘은 다른 중동지역에 비해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다른 지역 무슬림들보다 마음이 가난하다. 예멘 이슬람은 이슬람 국가들 중 대표적인 온건파로써 평화적이며 수용적이다. 또한 이슬람 정당들 간의 다툼이 없으며 종파간의 다툼도 적다고 한다. 대외적으로만 보이는 태도이지만 이슬람테러조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미국에 매우 협조적이며 실제로 예멘 내에서는 어떠한 테러단체도 만들어 지지 않았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외국인을 만났을 때 종교토론을 신청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예멘은 이슬람이긴 하지만 샤머니즘이 강해 거의 모든 상점 문들이 귀신을 쫓는 색깔인 파란색이고, 목주를 신앙의 도구로 사용한다. 샤머니즘이 강하다는 것 또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증거이다.

② 열려있는 나라

예멘은 아라비아반도 최저 GDP국가이자 최빈국 중 하나이다. 정부와 시민단체 부족사회 모두가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SK 정유, SK 텔레콤, 삼성, 현대, LG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특히 현대는 마립지역 천연가스 개발을 도맡아 하고 있다.

비자발급의 문제에 관해서도 예멘은 상당히 열려있는 국가이다. 비즈니스비자는 워드자격 증만 가지고 있어도 내어줄 만큼 비자발급이 자유롭다. 사나의 언어학원에서는 등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학생비자를 주선하고 있으며 전공과 기술에 상관없이 사업 비자를 받는 것도 쉬운 편이다. 현재 예멘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국제 NGO들에게 종교를 가리지 않고 도움을 청하고 있으며, 기독교 NGO 단체 들에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다.

③ 복음에 대한 높은 반응을

사이프러스, 레바논, 러시아 등지에서 보내오는 라디오 복음방송에 대한 반응도가 아랍권 전체에서 가장 높다. 그 증가율은 알기 어려우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한다.

사나 등지에서는 2~3명 정도 규모의 소그룹들이 양육을 받고 있으며,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극적인 예이지만 오래된 씨니어 선교사의 경우 일주일에 15~16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종교적 논쟁을 통하여 전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제 4 장

선교전략 보고서

1. 예멘에서의 효과적인 사역과 기도제목

1) 기독교 방송 사역

한 기독교 방송국의 통계에 따르면 예멘이 사이프러스, 레바논, 러시아 등지에서 송출되고 있는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들은 후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 연락을 취하는 반응율이 아랍권 전체에서 가장 높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편을 통해 성경을 요청했었는데 예멘 정부의 감시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기독교 방송국에 관심을 표명하고 난 후에 실종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고, 주로 핸드폰의 SMS서비스를 통해 성경을 읽고 싶다고 요청한다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과 위성 시설이 발달로 최근 2~3년간 예멘 안에서 방송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수가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 중 몇은 회심을 하고 선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양육을 받고 있다.

이 사역은 예멘의 영적 기상도를 보여주는 사역으로서 앞으로의 전망들도 밝으며 전체 사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방송을 듣고 방송국으로 연락을 하는 예멘인들 중에는 선교사들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거나, 악의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위험부담이 많아 주로 오래된 씨니어 선교사들이 현지인들과 접촉한다.

<기도제목>

-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집트 등의 타 아랍국가에서 성경과 신앙서적들을 밀수하고 있다고 한다. 원활히 성경과 기독교서적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멘 내에서도 인쇄할 수 있는 공장이 필요하다. 아직 프린트 인쇄기와 공장부지도 마련되지 않았다. 기계와 장소의 마련, 그리고 이 일을 전담할 기술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 언어적 제한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결된 관심 있는 현지인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선교사들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선교사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위험성이 있다. 선교사들의 언어적 진보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자.
- 사역에 필요한 컴퓨터 네트워킹을 맡아서 할 전문가가 필요하다. 한번 연결된 현지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필요한 일꾼들과 기술적 진보를 위해 기도하자.
- 직접 현지인을 양육할 현지인 리더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조사된 바로는 한 선교사에 의해서 3명의 리더가 신학과 양육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민족의 영적 리더가 되도록 기도하자.

- 복음에 대해 관심을 보여 선교사와 접촉 후 80% 이상이 연락이 두절된다고 한다. 그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 기독교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부족 내에서 몰래 성경을 구해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선교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들이어서 양육이 힘든 상황이다. 그들이 신앙을 잃어 버리지 않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선교사들과 연결되도록 기도하자.

2) NGO를 통한 의료 사역

예멘에 가장 효과적인 사역 중 하나이다. 부족한 의료진과 의료기술로 인해 예멘 정부는 국제 NGO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료적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예멘에서 사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 선교사들은 예멘 정부의 요청으로 예멘에 들어와 사역하고 있다. 예멘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예멘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입국시 관세가 면제되고, 수도·전기료 등이 무료라고 한다. 마더 테레사 수녀회를 비롯한 몇몇 NGO는 기독교 NGO인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요청해왔다. 이처럼 신분이 보장되고, 비자 발급에 무리가 없으며, 예멘 현지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역이 NGO를 통한 의료사역이다.

예멘은 적도에 가까워 태양이 강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안과 관련 질환이 많으며, 위생 개념이 없어서 병의 발병율이 높다.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 조산사들이 필요하며, 안과의 경우 레이저 시술기와 수술 전문의가 필요하다.

예멘 북쪽의 사다의 경우 전체 인구가 65만이고 주변지역의 인구까지 합쳐 1250만 정도이다. 하지만 병원은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슬람 재단에서 세운 쌀람병원과 WEC 의료팀이 근무하는 국립 병원 두 곳 밖에 없다. 지불라와 아덴, 사나, 사다에서 기독교단체들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많은 병원들과 헌신자들이 필요하다.

<기도제목>

- 안과 의사와 수술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비싼 수술비 때문에 예멘 전체 안과 수술의 절반 이상을 아덴의 RAS MORBAT CLINIC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특

히 사다의 병원에 안과 수술장비의 보급을 위해 기도하자.

- 예멘 여성1인당 평균 출산율이 6.67명이다. 산후조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위생적으로 산모에 대한 배려가 없다. 출산을 도와줄 조산사들과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예멘인 조산사들을 교육하고, 산모들을 돌볼 의료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 예멘인들은 치아에 악영향을 주는 까트를 씹기 때문에 치아 관련 질병이 많다고 한다. 치과 진료가 가능한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자.
- 사다의 국립병원의 경우 마취가 의사가 없어 수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마취과 의사를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 이집트, 요르단 등의 아랍계 기독교인 의사들이 예멘에 와서 현지 무슬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갔다고 한다. 헌신된 아랍계 청년 의사들이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예멘으로 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 의료 선교사들의 경우 의료사역에만 집중하다 보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기회가 많지 않다. 잠잠히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위로의 성령님께서 인내함과 소망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3) 성경번역 사역

예멘지역은 일반적으로 5~7개의 아랍어 방언이 존재하며 각 방언이 매우 달라서 지역마다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 현재 현대 표준 아랍어인 ‘프사’를 지방 방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진행 중이다. 무슬림들은 성경을 변질되었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만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극화하여 녹음한 테이프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성경을 전한다. 구약의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극화 하거나 예수님의 삶, 사도들의 삶을 극화하여 녹음한 후 전도용으로 배포하는 사역이 진행중이다. 극화해서 배포되는 성경 이야기는 지역 무슬림들에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어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MFR 10기 리서치팀이 조사한 하드라마우트 세운 지역의 경우 구약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이 번역되었고 사도행전이 최종 마무리 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 이후 이집트에서 녹음작업을 행한 후 하드라 마우트 지역에 전도용 테이프 형식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매우 기대가 되는 사역이다.

<기도제목>

- 번역하여 극화된 성경을 녹음하기 위해 이집트까지 몰래 사람과 물자를 날라야 하며, 반입과 배포루트를 정해야 한다. 필요한 재정은 현재 거의 마련된 상태이지만 녹음할 하드라마우트 지역 현지인 성우가 필요하고, 녹음된 테이프를 예멘까지 반입하여 배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2006년 여름 중에 이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를 위해 기도하자.
- 번역을 도왔던 현지인이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서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에 대해 지성적으로 상당히 수긍하고 있다. 성령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하자.
- 하드라마우트 지역에서 녹음된 성경 테이프로 전도사역을 감당할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와야 한다. 현재 번역 사역을 담당한 선교사님은 하드라마우트 지역에서 철수 후 다른 지역 성경번역을 시작하실 계획이다. 후발주자들을 이 지역으로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하자.

2. 현재 예멘의 물질적 필요와 필요한 사역들

(1) 부족 선교

예멘은 공화국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족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예멘의 많은 부족들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으로 인해 외부와 많이 단절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부족들에게 의료나 교육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수도나 전기 등의 기본적인 혜택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부족들이 외국인들을 납치하는 이유 중 하나도 정부를 대상으로 전기나 수도 등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선교사들이 예멘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심 받지 않고 전문인의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시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속이나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부족마을에는 거주는 물론이거니와 폐쇄적인 부족의 특성상 접근도 쉽지 않다. 그러나 종교로서의 이슬람의 영향력이 도시에 비해 적고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도움을 통해 부족 전체에 대한 복음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부족들에게 접근하여 더 구체적으로 리서치하는 사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족에 들어가 함께 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하다.

(2) 아동

예멘에서는 한 가정에 많게는 1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일을 해야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 예멘의 교육과정상 고등학교까지 무료이지만 학교 가는 시간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악습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인식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많은 자녀 수와 부족한 재정으로 예멘의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사역이 필요하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법적으로 아동을 돌보는 법제도가 제정되어야 한다.

(3) 중년 여성

15세 이상 예멘 여성의 70%가 문맹이라고 한다. 현대화로 인해 교육을 받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슬람의 특성상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중년 여성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른 나이의 결혼하는 문화로 인해 교육을 어린 나이에 포기했기 때문에 실생활에 필요한 상식이 부족하다. 또한 한 남자에게 4명까지 허용되는 부인, 남자 쪽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이혼, 남편과 남편 가족들의 비인격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중년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중년 여성들을 위한 학교 사역이나 방문 양육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소와 전문 상담가가 필요하다.

(4) 장애인

예멘은 전쟁이 많았고, 지금도 내전 중이어서 장애자가 된 사람들이 많다. 그뿐 아니라 지참금을 절약하기 위해 결혼이 대부분 부족집단내의 근친간에 이루어져서 유전적인 문제로 선천적 장애인인 사람들이 많다. 단 예멘은 장애를 부정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장애도 알라가 준 것이므로 ‘인샬라’의 정신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대가족 제도이므로 가족이 잘 돌보아주지만 돌보아줄 뿐 그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부족하다. 그러나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힘을 쓸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장애인이 10% 가량 있는데 맹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사된 바로는 요르단의 한 기독교단체가 장님과 귀머거리를 위한 교육을 위해 예멘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볼라에 유일한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으며 타이즈에 한 점자 학교가 있다고 한다.

무슬림들은 장애도 알라가 준 그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편견과 복지,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교육시킬 더 많은 장애인 학교와 교사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 또한 요구된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인 예멘에 꼭 필요한 도움이자 사역이다.

(5) 의료

예멘의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사다의 경우 NGO단체에서 의료팀을 운영

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무료 병원을 세워주었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상당히 적다. 120만 명 이상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두 개의 병원 최대 수용 병상은 135명이다.

주요 질병으로는 예멘의 먼지가 많고 햇빛이 강한 지리적 특성상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다. 또한 까트를 씹기 때문에 생기는 구강 관련 질환도 상당히 많다. 까트 재배에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강암에 걸리는 사람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아이들의 경우 여름에 설사병 겨울에는 폐렴이 잘 걸리며, 여성들의 경우는 출산관련 질환이 가장 많다고 한다. 남성들의 경우는 교통사고와 총기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지대의 경우에는 말라리아도 발생한다고 한다.

의료기기의 부족도 문제이다.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은데 의료기기가 낙후되었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수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의의 부족과 현지 의사들의 낮은 의료수준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훈련된 간호사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수술 전문의와 의료기기 또한 필요하다. 실제로 사다에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큰 수술은 시행 하지 못하고 있다. 예멘 출신의 의사는 많지만 일반의가 대부분이며 그들 또한 대부분이 재정 부족으로 병원을 세우지 못해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많은 병원비를 요구한다. 따라서 많은 병원건물이 세워져야 하며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비 또한 저렴 해야 한다.

(6) 성경 번역

무슬림들은 인질(성경)은 변질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판된 책은 보지도, 만지지도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듣는 것은 거부감이 덜하여 현지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에 관하여 전할 수 있다. 현재 예멘은 여러 종류의 방언이 있고 그 중 크게 7가지의 방언이 있다. 각 방언은 그 차이가 심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 각각의 방언에 맞춰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다. 또한 성경번역사역을 하는 사람도 너무 부족하고, 각각의 방언에 맞춰 성경을 번역하기 앞서 그 방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언어공부를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경번역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7) 개발 사역

낙후된 예멘의 경제 구조와 유통 구조를 변혁시킬 구조 개혁 전문가가 필요하며 수도관이나 전기 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을 보수하고 건설할 기술자가 필요하다. 현재 예멘의 산업은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기본적인 조립 공장을 건설하여 해외의 기업과 협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막지대나 고산지대에 사는 부족들에게 부족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우물을 파는 사역 또한 좋은 접근법이다.

3. 도출 가능한 리서치 주제들

(1) 예멘의 특정 부족 조사

1) 예멘의 부족사회

- 예멘은 1500여 개의 부족들로 이뤄진 국가이다. 남북전쟁 이후 공산국가였던 남 예멘은 현재 부족사회가 많이 없지만, 북 예멘의 경우는 여전히 부족사회가 존재한다.
- 부족사회마다 셰이커(족장)에 의해 부족사회가 운영된다.
- 물이 많지 않은 예멘의 특성상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벌어지는 부족간 분쟁이 잦았고, 다른 부족의 공격을 쉽게 막기 위해서 산 정상에 부족사회의 터전을 잡게 되었다. 그 결과, 부족 간 교류가 부족했고, 이질감도 강한 편이다.
- 따라서 한 가지 선교전략만으로 각각의 부족국가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2) 도출 가능한 리서치 주제

- 현재 부족간의 이질감의 정도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특정 부족이 갖고 있는 다른 부족과의 다른 생활모습들.
- 특별히 아크담 부족의 경우는 예멘 내에 있는 계급사회에서도 최하위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부당한 이익과 직업적 멸시 등을 받을 때가 많다. 예멘 내에서도 상처 받고 사회로부터 멸시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크담 부족에게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살펴 본다.

(2) 지역 조사

1) 예멘의 도시

- 남 예멘과 북 예멘으로 나뉘져 있었을 당시, 남 예멘은 아덴, 북 예멘은 사나가 중심 도시였다. 그 결과 통일 된 지금은 사나가 정치와 행정도시, 아덴이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 이 외의 도시들도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고, 특히 예멘 동부 지역은 발전도도 낮고 선교사의 수도 적기 때문에 아직 개척할 부분이 많다.
- 부족과는 다르게 개괄적이고 통상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2) 도출 가능한 리서치 주제

- 각 지역의 특성들, 예를 들어 사망률, 남녀 비율, 문맹율, 취업률 등을 조사해 그 지역에 어떠한 선교적 접근 방식과 사역이 용이한지를 알아 낸다.
- 타이즈의 경우 예멘 유일의 선교사들을 위한 언어학교가 있다. 타이즈 내에서 이 학교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통해 예멘의 선교 잠재성을 살펴본다.

(3) 예멘 여성 조사

1) 예멘 여성들의 삶

- 이슬람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결혼한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도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밖을 나가보면 심지어 여성숙옷상점도 남자가 운영할 정도로 그들의 터전은 좁다.
- 남자는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고,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아내들의 숫자도 적지 않다. 예멘에서 여성은 그만큼 억압받는 위치에 처해 있다.
- 또 다른 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여성들 자신의 인식수준이다. 변화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도출 가능한 리서치 주제

- 예멘의 특성 상 여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리서치 방법은 선교사들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듣거나 직접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밖에는 없다.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만날 수 있는지 조사한다.
-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혼녀에 대한 정부의 관리대책과 그들의 생활
- 여성들이 받고 있는 핍박과 어려운 삶에 대해 선교단체나 외부단체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 한 남성당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데, 이러한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성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4) 사회복지 현황 조사

1) 예멘의 사회복지

- 농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예멘에 단 하나밖에 없고 가격도 비싸서 아무나 다닐 수가 없다.
-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치료비 때문에 병원을 쉽사리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 병원의 시설도 미비하고, 의사의 수도 적다. 특정 전문의사는 없는 경우도 있다.
- 이슬람 가족문화의 특성 상 부모가 죽은 아이들이라도, 다른 사촌들이 맡아서 키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고아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 도출 가능한 리서치 주제

- 현재 예멘의 복지시설과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어떠한지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혹시 지역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지, 지역차는 얼마나 나는지.
- 외부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운영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 사회복지에 대한 예멘인들의 인식수준과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고 있는 혜택을 어느 정도인지 알아본다.
- 도움이 필요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지를 조사해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한다.

(5) 아덴 자유무역 지대의 발전 가능성

1) 아덴의 자유무역 지대

- 오래 전부터 예멘의 경제적 중심지였던 아덴은 1993년 5월에 자유무역지대 설립 법령을 허락 받았다. 자유지대 내에서 외국 기업의 소유권과 비 예멘 고용자에 대한 면세 혜택 등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교류항의 기능과 그 성장가능성이 커졌다.
- 국가의 자본부족으로 인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 도출 가능한 리서치 주제

- 예멘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개방성이 높은 아덴을 통해 예멘에 접근 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 그리고 아덴의 발전 가능성.

(6) 쌀레 대통령 이후의 정치노선과 흐름의 변화

1) 쌀레 대통령

- 분단국가시절이던 북 예멘에서 78년 대통령에 취임한 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쌀레 대통령. 그런 그가 정치노선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정치계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예멘에서 현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위인이 없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쌀레 대통령 자신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밝혔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 현재 우리나라와 수교는 중단된 상태이다.

2) 도출 가능한 리서치 주제

- 쌀레 대통령이 재취임 가능성과 재취임 되었을 경우 대중의 여론과 현재의 여론은 어떠한지. 다른 대통령이 취임 되었다면 정치노선과 여론의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수교형태에 변화가 있을지도 조사해본다.

(7) IT산업

1) IT에 관한 예멘인들의 관심과 IT가 갖는 중요성

- 예멘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 국가이다. 게다가 물과 같은 자연적 요인들도 열악한 편이다.
- 현재 예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 휴대전화 못지 않게 컴퓨터나 인터넷에 관한 관심도 예멘 경제상황과는 달리 매우

높다.

2) 도출 가능한 리서치 주제

- 정부의 특별한 지지도 없었는데 IT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던 계기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 봄으로써 IT 개방성을 통한 그들의 인식의 개방성도 가늠해 본다.
- IT를 선교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들과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해 본다.